



新年賀禮 떡 나누기

본회는 지난 1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천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118주년·통합개교 67주년 기념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胡文赫·朴杉沃·劉鐘海·尹勤煥·孫一根·李基俊·姜信浩·權彝赫·金在淳·林光洙·吳然天·鄭元植·孫京植·李御寧·申秀貞·趙完圭·洪性大·韓惠洙·金讚淑·李俊植등 동문이 시루떡을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迎春二題

동창회의 해외 교류 첫걸음!

도쿄대 수석부총장 본회 방문
양교 교류·활성화 방안 협의



지난 1월 30일 일본 도쿄대 에가와 마사코(江川雅子) 수석부총장이 본회를 방문해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SNU 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좌로부터 李炯均·劉鐘海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회장, 에가와 부총장, 尹勤煥·孔大植부회장, 裴仁俊관악언론인회장 <관련기사 3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5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 ◆일 시 : 2013년 3월 15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 ① 제15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출추

며칠 뒤 朴槿惠 제18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李明博대통령은 '前職대통령'이 된다. 현직대통령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전직대통령도 중요하다. 퇴임 후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제의 역사가 가장 긴 미국에서는 '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으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말까지 있다.

미국 의회는 전직대통령 처우를 놓고 1백50년 이상 논쟁을 벌였다. 건국 초기엔 어떤 지원도 없었다. 상당수의 전직들이 궁핍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우편물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을 계기로 1958년 전직대통령법(the Former Presidents Act)이 제정됐다. 급여를 받는 전직대통령이라는 직업(ex-presidency)이 탄생한 것이다. 이로서 전직대통령의 '애국적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다.

퇴임 이후 李대통령에게도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1억3천만 원 가량의 연봉에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사무실, 경호, 교통

및 통신 편의가 제공된다. 서울대 병원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경호 비용을 포함해 연봉 수십억 원의 봉급생활자인 셈이다. 그만큼 계속 국가에 기여해야 할 의무도 무겁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동창회보의 독자들도 이미 전직이거나 곧, 또는 언젠가 전직이 된다. 수십 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현역에서의 은퇴와 무관하게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전직으로 살아갈 세월도 점점 늘어난다. 현직과 전직 활동기간이 역전될 수도 있다.

‘前職’도 직업이다

미국 언론은 갈수록 취재원, 인턴, 코멘트 대상, 외부 필자로써 현역(current) 못지않게 전직(former)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만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통 언론에서 뉴스(news)보다 시각(views)의 비중이 커지는데 따른 영향도 있다.

일반인도 퇴직 이후에 각종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다. 많은 부분은 본인이 현직 때 저축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국가 지원 부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전직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커진다. 좋은 삶은 전직도 현직의 연장, 또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월급값'을 해야 하는 세월이 왔다.

(李容式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金芝河시인을 만나 인터뷰해 동아일보 2개 면에 걸친 특집기사(1월 9일자)를 실었다.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그는 “서울대 미학과가 문리대에 편입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 59학번이다. 본래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환쟁이는 가난하다’는 모친의 만류로 그림과 학문세계를 병행할 수 있는 미학과에 입학한다. 당시 미학과는 미술대학 소속이었으나 4·19가 터진 이듬해인 1961년 문리대로 편입된다.

金시인이 미학과와 문리대 편입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문리대는 단순히 서울대 내 단과대학들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학 중의 대학이었으며 한국 지성의 요람이었고 한국 지도층 양성소였으며 무엇보다 70년대 학생운동의 산실이였다.

서울대 문리대는 쿠데타로 집권한 朴正熙정권에 치명타를 안긴 ‘6·3’(64년 6월 3일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

이 절정에 이르자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을 이끌었다. 당시 주역 중 하나로 훗날 구속돼 끔찍한 린치와 고문을 당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직됐던 현대사기록연구원 宋哲元이사장이 쓴 ‘아! 문리대’를 읽어보면 당시 문리대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현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율할 정도이다. 그들은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와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지만 말과 글, 생각에 재갈이 물린 민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문리대는 광복 후 약 30년간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75년 2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해 3월 관악캠퍼스로 서울대가 옮겨가면서 인문-사회-자연과학대로 발전적 해체(?)를 했기 때문이다. 역사란 것은 때로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채 잊히는 것이 더 크고 많은 법이다. 서울대 문리대 역사도 너무 많은 부분이 잊히고 묻혔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끌어온 서울대 역사야말로 한국현대사의 축소판이다. 지금은 유아무아됐지만 서울대 해체론은 지난 대선에까지도 공약으로 나왔다. 이런 인식들은 서울대가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만 부각하고 민주화를 주도한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본다. 서울대 민주화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방향모색은 지난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TV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을 보았다.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비상을 보았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 서울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법인화도 이뤄진 만큼 서울대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

金芝河시인과 문리대

許文明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겨울산

吳龜鎭(조선공학65-69)
컨설턴트·시인

차가운 잿빛 하늘 아래
추억마저 떨구어버린 나무들이
눈발에서 떨며 울부짖는데

음츠린 구름과 마을들을 아우르며
숙연히 솟아 있는 겨울 산이
너희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고
멀리서 타이르는 듯하다

기나긴 인고의 세월에도
푸근한 미소에 덕을 베풀며
집이 사람보다 커서는 안 된다면
분수를 지키고 하늘에 겸허했던
아버지 같은 겨울 산이여!

오늘도 나 홀로
세모의 별판에 서서
텅 빈 가슴 속에 부는
유년의 바람 소리를 듣는다.

동문칼럼

학창시절 밤늦게 공부하다 도서관 문을 나섰을 때 싸늘한 공기에 묻어오던 밤의 향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동송동 세대의 막내인 나는 느티나무에 둘러싸여 있던 육중한 도서관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그때 맑은 밤 향기에는 본관 앞에 서있던 두 그루 마로니에 향도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공부를 업으로 삼는 내게 도서관은 평생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이다.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니 세상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곳곳의 도서관을 볼 기회도 많았다. 이상한 취미지만 낮선 곳에 가면 나는 도서관과 묘지를 둘러본다. 베네치아의 공동묘지에서 스트라빈스키를 발견하고 동베를린에선 헤겔을 만날 수 있었다. 런던의 하이게이트에 있는 마르크스의 묘도 찾아보았다. 그들 묘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놓고 간 꽃이 놓여 있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이 세상을 떠난 후 개인적으

교가 정든 동송동을 떠나 관악캠퍼스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38년이 됐다. 그 사이 관악은 엄청나게 많은 외관상의 변화를 겪었다. 그 속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건물 가운데 중앙도서관이 있다. 1975년 관악으로 이전했을 때 학생 수는 1만4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2만4천명을 넘어섰다. 도서관 소장 장서는 1974년에 1백10만권이었는데 현재는 4백60만권이 된다. 도서관은 포화상태이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은 캠퍼스 내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돼버렸다.



朴枝香
(서양사학71-75)
모교 중앙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은 작년 3월부터 신축을 위한 자금 조성을 시작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억원이 조금 넘게 모금됐고, 1백87명의 동문들이 동참해 주었다. 이와 별도로 冠廷李鍾煥 교육재단의 李鍾煥 명예이사장님이 6백억원을 출연해서 제2 도서관을 지어주시기로 약속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서울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낡은 도서관 건물은 여전히 손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낡은 도서관 건물 손볼 날 기다려

로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가 내 무덤을 찾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도서관은 묘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삶에 대한 다짐을 부추기는 곳이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만난 도서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호는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많이 이용해 정이 들기도 했지만 변화가인 5번가에 떡 버티고 서있는 웅장한 돌 건물은 정말 위풍당당했다. 대리석 계단과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서가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열람실은 진정 뉴욕인들의 긍지의 상징이었다. 서울대학

모습을 드러낼 신축 도서관 곁에서 너무 민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앙도서관 건물의 리모델링은 절대 필요하다.

동송동에서건 관악에서건 늦은 밤 도서관 문을 나설 때의 그 밤 향기를 기억하는 모든 동문들에게 간곡히 청한다. 오늘의 당신을 있게 만든 모교의 도서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랑스런 후배들이 선배들의 꿈을 이어 더욱 찬란한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천8백명, 나이가 1만8천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모금에 참여해 주신 최초의 1백87명의 고귀한 뜻을 이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鎭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鎭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金貞美, 崔永定

도쿄대 에가와 마사코 부총장 장학빌딩서 회장단과 오찬 간담



裴仁俊·林光洙·孫一根·劉鐘海·李炯均동문, 에가와 마사코 수석부총장, 孔大植동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SNU 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동창회 임원과 일본 도쿄대 에가와 마사코(江川雛子)수석부총장이 양교 간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劉鐘海·孔大植·李炯均부회장, 裴仁俊관악언론인회장, 도쿄대 에가와 마사코 수석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동창회 현황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는 에가와 부총장은 “대학 법인화는 도쿄대가 서울대

보다 먼저 시작해 롤모델이 됐지만 동창회 역할은 반대로 서울대가 앞서나가는 만큼 많이 배우고 싶다”며 본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林光洙회장은 “서울대총동창회는 매년 신년하례회, 장학금 수여식, 정기총회, 바둑대회, 골프대회,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특히 매년 10월에 열리는 홈커밍데이 행사의 경우 6천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행사에 많은 동

문들의 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는 주요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50여 명의 논설위원이 참여해 제작하는 동창회보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조언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등 양교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하버드대 경영대 일본연구소장을 역임한 에가와 부총장은 도쿄대 첫 여성 부총장으로서 현재 동창회·기획·국제·협력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에가와 부총장은 본회 방문에 앞서 29일 하네다 마사시·요시미 수나 부총장과 함께 모교를 방문해 ‘서울대-도쿄대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요시미 수나 부총장의 ‘글로벌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 후 법인화에 대한 양교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대학법인의 발전 방안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도쿄대 연석회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교간 교류를 크게 확대하고, 베세토하(BESETO-HA) 구상 등 아시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香〉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보는 그 가운데에서 우선 다양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박사 劉太鍾(농화학48-52)동문의 저서 ‘9988 건강습관’(리스크刊)에서 발췌해 연재한다. 劉교수는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곡천건강장수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노년을 위한 ‘젊어지기 프로젝트’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아 둘 수야 있겠는가. 이미 늙었다고 속수무책으로 놓아두면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진다. 다시 젊어지거나, 최소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음식을 먹을 때는 오래 씹어 삼켜라**: 밥을 한 입 넣고 30번을 씹으려면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도 씹어 먹으라고 한다. 나물이나 고기류뿐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액이 잘 섞여 소화가 잘된다.

△**머리 쓰는 공부를 하라**: 쓰지 않고 모셔 두는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쓰는 기계는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지만 정지된 기계는 성능을 개선할 기회가 없는 데다 녹이 슬기 때문이다. 일하면서도 계속 머리를 쓰고 연구하는 습관을 들인다. 독서도 좋다. 공부할 게 없으면 전화번호라도 하나씩 외운다. 입력된 단축번호로 걸 게 아니라 숫자를 하나씩 눌러 가며 외워 보는 것도 두뇌운동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라**: 기지개는 본능적 스트레칭이다.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깨어날 때는 잠으로 느슨해진 근육과 신경이 자극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기분이 맑아진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질 위험도 있다. 기지개를 켜고 좀 뒹굴면서 위밍업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안전하다.

△**잠깐의 낮잠을 자라**: 피로는 쌓인 즉시 풀어야지 조금씩이라도 쌓아 두다 보면 병이 된다.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 가능하다면 억지로 잠을 쫓지 말고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붙인다. 15분의 낮잠만으로도 오전 중 쌓인 피로를 풀고 오후를 시작할 수 있다.

△**식사 중간 시간에는 간식을**: 하루 한두 차례 식사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점심식사 후 속이 출출할 즈음이면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거리로 속을 채워 준다. 저녁 시간까지 기다려 속을 완전히 비우면 저녁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살찌기 딱 좋다. 점심과 저녁사이에 간식은 제시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팔약근을 조여라**: 팔약근은 항문을 조일 때 사용되는 근육이다. 팔약근을 조이는 운동은 성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노년에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막고 단전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바르게 서거나 허리를 세우고 앉은 자세에서 팔약근을 힘껏 조여 3초쯤 멈췄다가 풀어 주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 운동을 5~10분 정도 하고 나면 몸이 피로할 때라도 정신이 바짝 든다.

△**하루 10분,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뀐다. 밝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것도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노래를 저절로 따라 부를 만큼 심취해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심리 곡선이 음악의 선율에 동조돼 안정감을 얻게 된다. 노래 부르기는 긴장과 불안을 가라앉히고, 회귀적이며 우울한 감정을 달래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라**: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활기를 얻는다. 사회적 존재감이 없으면 고립감과 소외감이 우울과 좌절감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즐겁지 않은 세포는 의욕을 잃는다. 의욕을 잃으면 인체는 급속히 늙어간다. 마음을 너그럽게 열어 놓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의욕을 찾는 것은 젊음을 되찾는 데 중요한 요소다.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임성용 과장 핸드폰: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 徐桂淑·李文漢·尹德重·嚴玉鳳·金慶漢·崔銘洙·林光洙·宋明儀·宋圭政·黃仁太(崔炳五동문 대리)·鄭聖立·朴哉圭(朴泳求동문 대리) 동문

신년회서 “시대적 사명 완수 위한 책임 공유해야...”



權彝赫고문 건배사



鄭元植고문 건배사



李御寧고문 덕담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의 축하무대 모습

유공 동문 23명에 공로패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118주년·통합 개교 67주년 기념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SBS 柳晔味(성악00-04)이나 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 林光洙회장과 모교 吳然天총장의 신년사, 시루떡 나눔 행사, 축하, 건배 제의, 공로패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林光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모교와 총동창회가 힘을 모아서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참으로 보람찬 한 해였으며 모교는 지난해 초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립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장학빌딩의 임대수익 연간 40억원을 바탕으로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후배 재학생들에게는 매년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지난

해 11월 12일 모교에 70억원을 지원한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 교수님들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모교의 역사자료 수집과 연구에 전력을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손색없고 자랑할 수 있는 1백억원 규모의 서울대 역사기념관을 건립해서 모교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모교와 총동창회가 손을 맞잡고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모교의 국제적 경쟁력과 명예를 가일층 제고하는 동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교가 2025년 전에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진입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고 당부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오늘은 모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로써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문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모교가 존재한다”며 “모교는 지난 1년 동안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적인 대학 운영체제를 구축했고, 교육·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 1일 오전 7시 국회에서 모교 법인화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모교 부속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모교에 100% 귀속되는 명시규정이 완결됐고, 이는 많은 동문들의 열의와 헌신에 의해서 이룩된 개가라고 생각한다”며 “모교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의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더 나아가 시대를 선도하는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지식과 지혜의 기지로 모교는 동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비전 공유에 노력할 것”이며 “국가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회 權彝赫·姜信浩·鄭元植·李御寧고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劉鐘海·金讚淑·孫京植·洪性大부회장, 모교 趙完圭·李基俊前총장, 吳然天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申秀貞음대동창회장, 韓應洙무역협회장, 朴彬沃前평의원회 의장, 胡文赫교수협의회장 등이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대표해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떡 나눔 행사가 끝난 후 이어진 축하무대에서는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희망의 나라로’, ‘My way’, ‘신아리랑’ 등을 불러 행사장의 흥을 돋웠다.

중창단을 대표해 林東赫(성악 01-09)동문은 “총동창회 행사에 초청돼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러니 많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權彝赫고문은 건배사에서 새해 인사를 건넌 뒤 “인간이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첫 번째가 여유롭고 윤택한 마음가짐이며, 두 번째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인 유머”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또 “평소 즐겨 외치던 건배구호인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라는 구호를 오늘은 우리 자랑스러운 모교와 총동창회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다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외쳐보겠다”며 ‘나가자!’를 선창했다.

鄭元植고문은 건배사에 앞서 지난해 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학과 교수 출신인 文龍麟(교육67-71)동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은 文동문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교육을 정치적인 편향된 이념에서 구제하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많은 교육자들의 소망이고 승리”라며 “앞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성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건강과 새해보다 축복된 한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길 기대하는 뜻을 담아 건배하자”고 힘차게 외쳤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동문 영접라인에서 기념촬영 : 李俊植연구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회장, 吳然天총장, 한국학중앙연구원 鄭正佑원장, 姜信浩고문

“정통성 기릴 역사기념관 건립 계획”

세계 명문대학으로의 발전 기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 특별과정동창회 직전 회장인 金慶漢(법대)·李角模(수의대)·鄭之碩(약대)·徐桂淑(음대)·李文漢(대학원)·咸鍾漢(교대원)·李萬儀(환대원)·宋圭政(부산지부)·尹德重(창원지부)·鄭求民(안동지부)·金光石(AMP)·朴泳求(AIP)·李相鎬(ABP)·張燦基(HPM)·崔炳五(afb)·宋明儀(AMPFRI)·咸光鮮(FIP)·嚴玉鳳(ANMP)·河相哲(SPARC)·鄭聖立(AFP)·林周宰(ASP)·崔銘洙(IFP)·白原寅(BCP)동문 등 2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만찬 중에는 李御寧고문이 참석 동문을 대표해 새해 덕담을

전했다.

李고문은 “지난 2010년 이 자리에서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우리 동문들도 호랑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올해 뱀의 해를 맞아 다시 한 번 덕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2천7백여 종의 뱀 중에 독을 갖고 있는 뱀은 25% 안팎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독을 생각하기 때문에 뱀을 기피하고 싫어한다”며 “그러나 뱀의 독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뱀은 인간이 싫어하는 동물이면서 또 귀중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1천여 명의 동문들이 국민의례를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올해는 독이 있는 뱀처럼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큰 약이 될 수 있다”며 “모든 동문들 역시 뱀의 독을 약으로 만들듯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이때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생활대동창회장을 지낸 중앙대 鄭興淑(가정교육59-63) 명예교수가 계사년 희망의 한해를 맞으라는 뜻으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을 없다’(김재진 지음)와 ‘오늘을 사랑하라’(토마스 칼라일 지음)는 시를 암송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분회에서 준비한 커피잔 세트를 기념품으로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동후디스 李金器(약학55-59 분회 부회장) 회장과 (재)서울대 발전기금에서 각각 유제품과 포켓용 돈보기를 협찬했다. (香)

본회 임원 초청 신년인사 나눠

관악언론인회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1월 29일 서울 필운동 한식당 예조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의 초청을 받아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초 모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족하고 세계적 대학평가기관인 QS에서 세계 37위로 도약했으며 특히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동경대를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고 전한 뒤 “총동창회는 서울대 120년사 편찬 작업을 곧 시작하도록 하고 모교에 1백억원 규모의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동문 여러분들이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상을 잘 홍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裴仁俊회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자리에서 관악언론인회(관악언론인회)의 신년모임을 만들어 준 林光洙회장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는 총동창회와 관악언론인회가 국가와 사회, 모교와 각자의 정진을 위해 서로 돕고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기며 동창회와 관악언론인회, 모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동문간 결속을 위해 힘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孔大

植·李炯均·辛鉉雄·文昌克·金仁圭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본보 徐玉植·裴仁俊·尹在錫·李東植·金鎮國·吳在錫·李容式·李先敏·蔡耕玉 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朴敏(문화일보)·李東憲(YTN)·崔勝旭(한국경제신문)·姜京希(조선일보)·李春奎(서울신문)·愼藝莉(JTBC)·이상은(한국경제신문) 동문이 참석했다. (載)



관악언론인회 2013년 정기총회

2월 27일(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11회 정기총회 및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장

◆내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후 7시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용 : ① 의안 상정 및 의결·경과보고
② 제10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관악언론인회 회장 裴仁俊



金炯周·崔道成·李基俊·高 健·辛鉉雄·張素媛·孔大植등문

장학연구지원사업 자문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논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2층 JW's Grill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위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학연구지원사업은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학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주요 강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회가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이인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 前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高 健(응용물리67-74)총장, 한동대 崔道成(경영70-74)부총장, 모교 발전기금 金炯周(전자계산78-82) 상임이사, 張素媛(국문80-84)평생교육원장, 한양대 李 榮(경제83-87)기획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부회장, 辛鉉雄(지리64-68)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자문위원 중 서강대 姜榮安교수는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각 대학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강의 실태를 점검하고 강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자문회의는 현재 해외 우수 대학의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 회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모교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은 사회적 나눔의 의미에 중점을 뒀 일반 시민도 강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내 대학 중 숙명여대와 한양대의 동영상 강의 플랫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모교가 추진할 동영상 강의의 타 대학 대비 차별성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자문회의는 타 대학의 강의 선정 기준 및 호응도 조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등에 대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모교의 강의 주관기관 및 서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DCO SNU 2013(Dental Community Orien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행사를 개최했다.

모교 치의학대학원 및 치과병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 졸업을 하는 동창회 신입회원(67

회 졸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게 됐다.

이날 韓星熙(치의학79-85)·梁勝旭(치의학89-95)동문 등이 선배 치과의사로서 각자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소프라노 李貴妃娥(성악05-09)동문의 축하공연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이어 각 테이블별로 선배 멘토들이 착석한 가운데 'Round Table Talking'을 갖고 치과의사로서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의대동창회

장기려의도상 시상식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12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함춘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제16회 함춘학술상 및 제9회 장기려의도상을 시상했다.

이날 함춘학술상 시상식에서 함춘동의의학상 수상자로 모교 내과학교실 朴慶秀(의학78-84)교수, 함춘의학상 수상자로 펜실베이니아대 韓昌珪(의학75-81)교수·서울아산병원 姜德鉉(의학81-87)교수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또 장기려의도상 수상자로 모교 외과학교실 朴貴媛(의학66-72)교수를 선정했다.

신년회서 모교 발전 위한 다짐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玄勝鍾·金春鳳·琴震鎬·孫一根·丁海昌·金滉植교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辛永茂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 법대는 현대사를 증언하는 역사이자 가치가 높은 학과로서, 각 분야에 진출해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는 동문들이 많다”며 “후배들의 공부와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있어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丁相朝·金春鳳·金慶漢·金滉植·玄勝鍾·辛永茂·琴震鎬·李相赫·丁海昌·孫一根등문



金花中·俞淑子·金順子·朴賢愛·洪麗信·洪京子·李愛珠·李仁淑등문

모교 학장 이·취임 축하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1월 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앞서 열린 간호대학 학장 이·취임식에서 제12대 학장으로 朴賢愛(간호76-80)교수가 취임했다.

洪京子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회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간호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모교 李仁淑 전임 학장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한 뒤 “새롭게 취임한 朴賢愛학장에게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 따뜻한 배려와 원활한 소통,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간호대학의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임 朴賢愛학장은 “교육 과정의 내실화, 연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 봉사사업 등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동남아 지역 간호교육 허브를 만들기 위해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멀티 캠퍼스

모교 법대 丁相朝학장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여성의 리더십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시대를 맞이해 모교 로스쿨에서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 여학생 숫자가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힌 뒤 “가난하고 처지가 어려운 후배들에게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金滉植(법학67-71)국무총리부인사함을 통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민연한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깨달았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에, 사회지도층인 모교 법대 동문들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고려합동법률사무소 金春鳳(법학44-48)변호사가 건배 제의를 했으며 케이크 절단식이 진행됐다.

사업에 참여와 지식 나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모교 간호학과 洪麗信(간호51-54) 명예교수, 李淑子(간호52-55)·金花中(간호63-67)·李愛珠(간호65-69)동문이 새해 덕담을 나누며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수의대동창회

장학재단 이사회 열어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1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소회의실에서 장학재단 鄭英彩(수의학56-60)이사장, 李文漢(수의학66-73)회장 등 13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등 장학재단 회무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6억2천만원이었던 재단 기본재산에 83~85학번 동기회가 1천만원씩 기부한 3천만원의 기부금을 포함시켜 증자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載〉

아인슈타인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강연 차 지방에 가기 위해 역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는 역사 안을 오가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역무원이 그를 알아보고 뭘 찾느냐고 물었다. “기차표를 찾고 있어요.” 그러자 역무원은 아인슈타인을 그냥 모시겠다며 열차에 탈 것을 권했다.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계속 표를 찾고 있었다. “박사님, 그냥 타셔도 된단니까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내부자 소행

생맥줏집에서 술을 마시던 한 주정뱅이가 비어버린 잔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그는 옆자리 사람을 보고 물었다. “이봐요, 당신이 내 무릎에다 맥주를 엷질렀어요?” “천만에요”라고 그 사람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투덜거리면서 다른 쪽 사람을 보고 욕을 해댔다.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했다. 주정뱅이는 축축한 바지를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했다. “생각했던 대로 내부 소행이로군!”

(독자제보 환영)



‘빛내자상’·‘뚝자상’ 시상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1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李賢宰(경제48-53) 고문을 비롯해 동창회 成耆鶴(무역66-70)회장 등 5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써준 동문들을 격려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모교 상과대

학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행사장 앞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6분여간 흘러나와 참석한 동문들의 감회를 새롭게 했다.

成耆鶴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신 여러 은사님, 선후배 동문 및 현직 교수님들 덕택에 상대동창회가 더 도약하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의 굳건한 기초 위에 세대적·지역적·경제적·사상적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우리 상대인이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감사 선출...공로·감사패 수여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2013년 제1회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61·62학번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46학번인 宋煥昌동문부터 재학생까지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鄭潤煥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계사년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며 “3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는 새로운 회장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동창회가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李鶴來학장은 인사말에서 “모교 관악캠퍼스의 약 2.5배 규모의 강원도 평창 바이오단지 가 오는 6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농업생명과학 연구의 현장실험시설 현대화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바이오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61·62학번 동기회 趙豊(농경제61-65)대표가 장학기금으로 2백만원을 출연했으며, 행사

를 위해 신호그룹 李淳國 前회장이 막걸리를 협찬했다.

한편 신년회에 앞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제9대 감사로 曹鍾守(잡사학66-77)·徐承鎭(임학72-79) 동문을 선출했다.

또 韓仁圭(축산학52-56) 前회장을 비롯해 辛東韶(농경제57-61)·宋鍾益(농경제55-59, 동문이 공로패, 千冀吉(농경제57-61)·柳錫滢(농공학58-64)·崔禮煥(농공학59-65)·徐基浩(농학60-64)동문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전북지부동창회

전북은행장 특강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월 14일 전주 시내 백리향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우석대 姜哲圭총장, 전라북도 金完柱도지사, 원광대 丁世鉉총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음악회가 열렸으며, 전북은행 金翰은행장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또 공석 중인 총무이사는 金學壽재무이사가 겸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신송홀딩스 曹甲周(경제58-63)회장과 삼성그룹 崔志成(무역71-77)부회장이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상했으며, 李康秀(상학51-55)·金正銀(경제52-56)·李鍾衍(경제52-56)동문 등 33명과 20회 동기회, 24회 동기회, 무역과 33회 동기회가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뚝자상’을 받았다.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山 1, 無爲自然 V, 한지에 수묵담채, 24×23cm, 2011

晉敬琇 作

〈작가약력〉

- ▲경기여고 졸업
- ▲1966 모교 회화과 졸업
- ▲1993 제1회 개인전 (백상갤러리)
- ▲1997 제2회 개인전 (도올아트다운)
- ▲2000 제3회 개인전 (상갤러리)
- ▲2007 제4회 개인전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1 제5회 개인전 (가나아트스페이스)
-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장 초대전
- ▲한국 전업작가전 외 그룹전 다수

대전·충남지부동창회

회장·감사 재선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6일 대전 유성 호텔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 및 신

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吳應準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교의 법인과 출범을 계기로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2년 지부행사의 경과보고 및 사업결산에

대해 승인하고, 지난 1년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張東日(농공학68-72)·方在旭(생물교육68-75)부회장, 南宮英(농생물81-85)이사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임원 개편을 통해 회장 및 감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임 했다.

여수지부동창회

신년하례회 개최

여수지부동창회(회장 金直圭)는 지난 1월 8일 여수시 문수동 한정식당 ‘다다’에서 2013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秋永求동문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모교를 빛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金直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도 동문 여러분의 일취월장을 기원하고 모교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부동창회

고전연구 모임 가져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1월 18일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영풍HS 전시장 회의실에서 고전연구 모임을 가졌다.

고전연구모임은 林正根(의학70-76)회장, 李柱弘(외교88-93)사무국장, 邊知亮(정치78-83)·安奉振(공법학81-85)·洪允基(중어중문88-94)·朴容萬(종교88-95)·姜昇權(국민윤리92-97)동문 등 7명으로 구성된 지부 내 소모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진행해 오고 있다.

부산지부동창회

전임 회장에 공로패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安永求)는 지난 12월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3백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가족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安永求(공업교육65-69)회장은 전임 宋圭政(사학63-67)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이어 2012년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한편 저녁 만찬 후 송년음악회와 다양한 경품행사 등을 열어 친목을 도모했다. (美)



金鳳九·林光洙·李舜鍾동문

기계동문회

기계동문회(회장 吳元錫)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해 동창회 吳元錫회장, 모교 李俊植연구부총장, 공대 李愚日학장 등 1백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기며 덕담을 나눴다.

吳元錫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내외를 막론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학계, 연구소, 산업계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李愚日학장, 金炳周·元裕鐵동문, 吳元錫회장, 金讚煜·裴洵勳·明泰鉉·崔相弘·金鍾汶동문, 李俊植연구부총장

신년교례회서 덕담 나뉘

있는 동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裴洵勳고문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걸어온 현장의 기술을 모교 공대에 가르쳐야 한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해줄 때 비로소 명품

기계공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吳元錫회장이 2백20만원과 기념품 1백50점, 아태위성산업 柳長壽대표가 50만원을 출연하는 등 다수의 동문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신년회에 참석한 구법회 회원들이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기념촬영했다.

장학빌딩서 신년모임 열어

법대 9회(구법회)

법과대학 9회 동기모임인 구법회(회장 李海遠)는 지난 1월 2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SNU 장학빌딩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李海遠회장, 崔斗衡 前회장, 金昌基총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金昌基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회는 경과보고, 회장 인사, 오

찬 순으로 진행됐다.

李海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崔斗衡 前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구법회는 孫一根동문이 조직한 산악회가 주축이 돼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단결을 다져 나가며 타 모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3명의 부회장들의 도움을 받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安國正·金理那·姜昌一·金浚植·河沅동문

새 회장에 鄭玉子동문 취임

사학과동창회

사학과동창회(회장 安國正)는 지난 1월 17일 서울 도화동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安國正회장 등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安國正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함께 뭉쳐 사학인으로서 똘똘하게 성취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차기 회장님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

했다.

인사말에 이어 회계보고와 감사보고, 자랑스러운 사학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河沅(사학68-72)심사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수상자로 선정된 홍익대 金理那(사학60-64) 명예교수, 姜昌一(국사71-80)국회의원, 외환은행 金浚植(서양사학71-78)성북동지점장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했다. 수상자 이승준(동양사학90-97)영화감독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모교 국사학과 鄭玉子(사학61-65)명에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鄭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양사·서양사·국사학과의 3개 동창회를 융합해 사학과동창회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무인 듯하다”며 “동창회 활성화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선후배간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트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폴리누스 金能求(서양사학81-88)대표가 ‘정치단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농화학과동창회

신년회서 화합 다져

농화학과동창회(회장 尹錫厚)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徐靑源 前회장을 비롯해 金永瓏상임간사, 李貞順 총무 등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신년 덕담을 나눴다.

동창회는 매년 정기총회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연극동문회

총회서 회칙 개정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는 지난 1월 12일 서울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칙 개정을 통해 ‘연극계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의 목적을 확대하고, 동문회 조직을 상설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李順載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학번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올해는 조직과 재정, 인적 차원에

서 내실을 기해 2회 정기공연을 힘차게 준비해 올리자”는 포부를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올 한 해에도 申榮均고문, 李順載회장을 비롯한 연극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깃들고 만사형통하면서 건승하시길 중심으로 기원한다”는 축하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동문회 申榮均(치의학48-55)고문도 동문회의 발전과 안녕을 바라는 동영상 격려사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吳明錫(국악74-78)동문이 지도하는 에버그린중창단의 공연과 元蒼淵(성악82-87)동문의 시 낭송, 모교 총연극회와 뮤지컬동아리 렛미스타트의 축하무대 등이 이어졌다.

마로니에회

朱剛秀동문 초청 모임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 단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1월 15일 서울대 광화문모 주점에서 신년 하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한국가스공사 朱剛秀(지질64-68)사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朱동문은 지난 세모에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아 동기생들의 열렬한 축하의 환호를 받았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품질대상과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동굴학회 李光晝(지질64-71 문화재위원)회장은 제주도 용암동굴을 유네스코 자연문화재로 등재시키는데 일조해 기쁘다고 말했다. 전주MBC 柳熙根(사회사업64-68)前사장은 새해에는 방송계로 롤백해 마이크를 잡고 현장을

누비게 됐다고 인사했다.

이날 그동안 모임에 뜸했던 趙貴衍(국문64-70 前인천항부두관리공사 사장), 李起盛(지리64-68 계원예대 명예교수)·金永文(사학64-69 영남대 명예교수)동문이 참석했으며, 郭明圭(사회64-68 소설가)·金淑子(국문64-68 시인)동문 부부가 자리를 함께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물리학부동창회

金聖中회장 1억원 약정

물리학부동창회(회장 金聖中)는 지난 2011년부터 김회장이 출연한 장학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모교 물리학부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국제종합물류 대표인 김회장이 지난 1월 9일 장학기금 1억원을 추가로 출연키로 약정했다. 이로써 총 2억원의 ‘金聖中장학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載)

2·3 월 행사 캘린더

2월 19일(화) 19시 • 치대동창회 정기총회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 (문의 : 02-742-7082)	2월 22일(금) 19시 • 약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문의 : 02-701-3456)
2월 26일(화) 11시30분 • 공대동창회 최우수졸업생 시상식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문의 : 02-880-7030)	2월 28일(목) 18시 • SPARC동창회 정기총회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문의 : 02-880-4353)
3월 4일(월) 18시 • 음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뉴서울호텔 201호 (문의 : 02-876-1440)	3월 13일(수) 18시 • 사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 (문의 : 02-6399-6500)



회장 이·취임 ... 임원 선임

AMPFRI동창회

식품 및 의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根상임 부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權純晚 원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宋明儀(24기)前회장은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서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朴恩熙(11기)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 및 일반인들의 창업, 법무 및 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상설 자문기구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창회 참여가 곧 동문의 성공을 부르고, 동문의 성공이 곧 사회에 공헌이 되는 선순환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고문, 수석부회장, 발전위원장 등 임원으로 선임된 38명의 동문에게 임명패를 수여했다.

ACPMP동창회

자랑스런 동문상 수여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綜郁)는 지난 1월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사 및 축하,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행사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케이크 나눔 및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ACPMP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朱昇鎔위원장, 석창건설 이재철(3기)대표, 엠디엠 文州鉉(6기)대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BCP동창회

동문 초청의 밤 가져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蓮梅)는 지난 1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

로니에룸에서 제11기 동문 초청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생명공학공동연구원 劉永濟원장을 비롯해 바로돈-S.F 최수일(1기)대표, 대한약품공업 이승영(1기)이사, 삼진글로벌넷 박정수(3기)부사장, 다인

AFB동창회

梁好錫회장 추대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패션경영인상 시상식 겸 송년회를 개최하고 제7대 회장에 梁好錫(8기)대표를 추대했다.

2012년 패션경영인대상 수상자로 성원에프씨 박종운(7기)대표, 스코노코리아 백동재(8기)대표, 님프만 서문환(9기)대표, Hempel 명유석(10기)대표, 덕산엔터프라이즈 房株得(11기)대표, 제시엔코 전희준(12기)대표를 선정해 상패 및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호텔 프리미어룸에서 모교 생활과학대 余禎星학장을 비롯해 崔炳五前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AIP동창회

安秉萬 前장관 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지난 1월 1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백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安秉萬(행정60-64)前장관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특징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다.

바이오 이제현(3기)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朴龍浩(수의학74-78)본부장이 ‘광우병과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관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定)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BCP동창회 崔蓮梅회장

(김정문 알로에 대표)



지난해 9월 22일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BCP)동창회 제3대 회장에 김정문알로에 崔蓮梅(2기)대표가 선출됐다. 崔회장은 “국내외 산업시찰 등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 속에 연구가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현장 중심적인 교육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저는 BCP과정이 개설될 때부터 참여했고 수료한 이후에는 김정문알로에 임원들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해 현재까지 많은

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교수님을 포함한 고문단 12명과 저를 곁에서 도와줄 사무총장, 재무총장, 총무이사, 기획섭외이사와 홍보이사를 선임했습니다.”

－ 향후 추진 사업은.

“체계적인 동창회 운영을 위해 12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중심은 동문들 간의 결

“현장 중심 교육 강화에 집중”

임원들이 수료했습니다. 아마도 김정문알로에가 11기째 운영되는 BCP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직원이 참여한 회사일 것입니다. 이 점이 저에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BCP과정은 환경의 변화를 읽고자 하는 분들의 소망이 반영된 특별과정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방향을 미리 가늠하고 산업화되지 않은 미래의 방향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바이오산업의 많은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회장단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지.

“현장 중심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자 기존 회장단을 대거 확대해 구성했습니다. 12개 분과위

속과 기업 리더로서의 역량을 묶어낸 시너지 창출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학사업 등 사회 나눔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회장으로서 동문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발판 삼아 소통과 화합이 있는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崔회장은 1985년부터 청주 중앙여중 국어교사로 교직생활을 하다가 1991년 김정문알로에 청주지사를 거쳐 2006년 이후 김정문알로에 대표를 맡고 있다. 남편 金正文회장(1927년~2005년)의 별세 직후, 부도 위기에 내몰린 김정문알로에를 ‘독서 경영’을 통해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定)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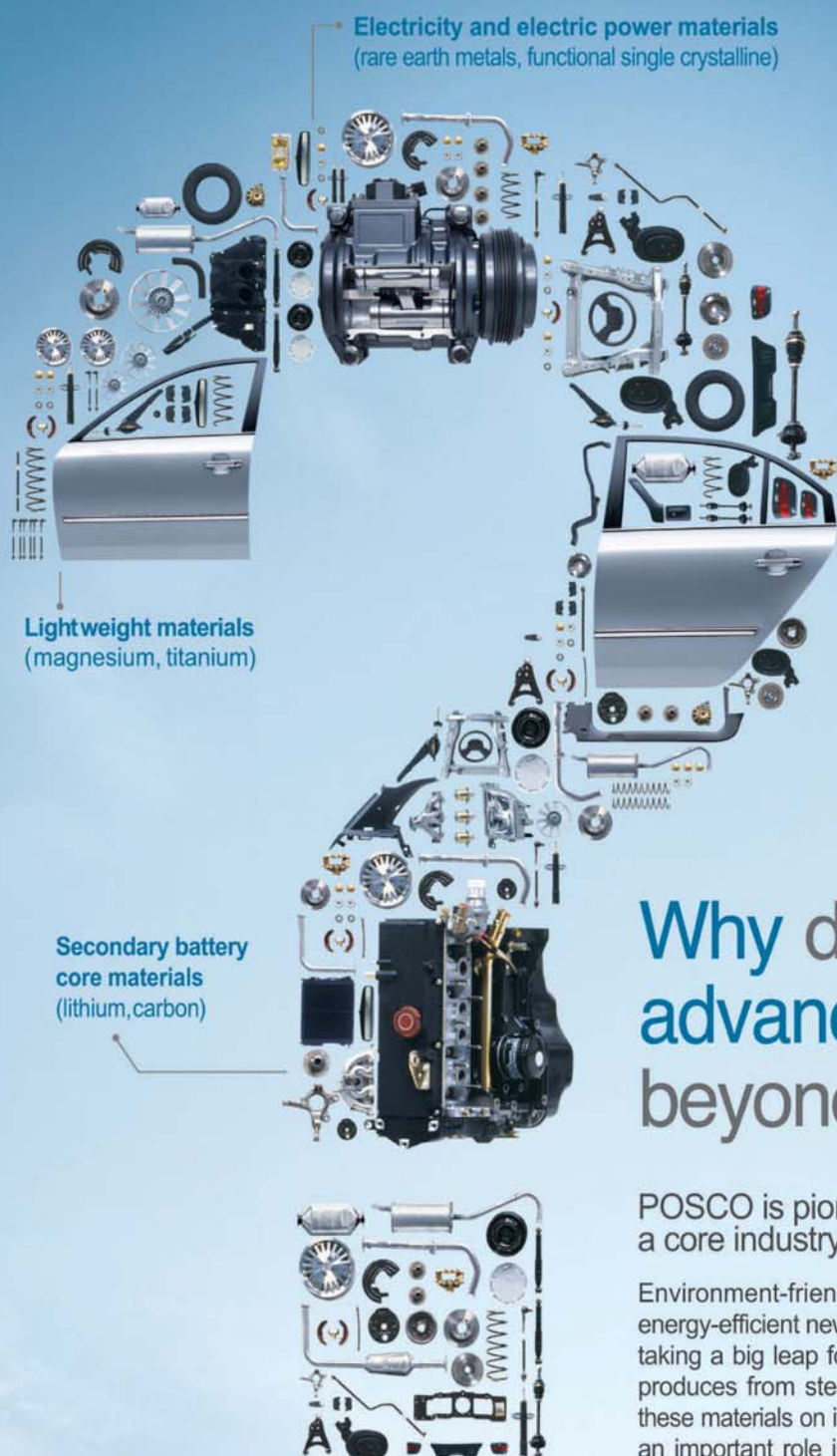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Why does POSCO produce advanced materials of future beyond steel?

POSCO is pioneer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a core industry to green growth.

Environment-friendly industries such as next-generation automobiles require energy-efficient new materials. POSCO, on the basis of steelmaking know-how, is taking a big leap forward as a comprehensive materials maker that develops and produces from steel-related materials to future core materials. It will manufacture these materials on its own, which it used to depend on other countries, so a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SCO's such efforts will continue to be made in developing new advanced materials.

posco
We move the world in silence
www.posco.co.kr



화제의 동문

청소년게임문화協 朴景賢이사장



최근 우리 사회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게임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는 기존 게임물을 방지해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게임관련업계의 종사자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문학·경영학·언론학·정치학·평생교육학·범죄심리학 등을 전공한 여러 학자, 변호사, 종교인 등이 뜻을 모아 지난해 말 (사)청소년게임문화협의회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경찰대 朴景賢(국어교육64-68)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바른 청소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세워진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차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G-Learning 시스템 구축

청소년 보호 취지에서 2011년 11월에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게임 섷다문제’는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게임문화협의회는 청소년이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제재하는 쪽과 숨바꼭질을 되풀이하며 피해갈 구석을 만들 것이라 보고, 단순히 컴퓨터 게임과 가정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닌 예방과 해소를 위한 ‘유해 게임물 정화 시스템’과 ‘청소년 상설 수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청소년에게 게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값싸고 재미있는 놀이 도구라는 점을 염두에 뒀 건전하고 교육적인 청소년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 게임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전통 놀이 소재 게임물과 학교 교과학습 관련 게임물을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임을 모두 연계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주면서 학업 성취도 도모하는 G-러닝(Game based Learning, 게임중심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차이사장은 전통 놀이 소재 오프라인 게임물로 이미 4세 바둑과 윷놀이 등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둔 회원사를 이야기하면서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智·德·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바른게임센터’를 상설 운영하겠

전통놀이 소재 게임물 연구·개발할 터
智·德·體 조화 이룬 프로그램 보급

다”고 밝혔다.

“훈수 좀 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력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교직자는 훈수꾼과 비슷하지요. 나는 ‘風’자를 바둑 풍이라 읽어도 너희는 바람 풍이라고 하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는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감놔라 대추놔라 때벌려야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실전에는 약하지만 판세를 읽는 능력은 쏙 있습니다. 협의회 이사장직은 비영리법인의 대표로서 봉사하는 자리지만 적극적인

로 훈수를 뒀 청소년의 게임 문화의 방향키 구실을 해볼까 합니다.”

절제력 키우는 게임교육 실시

차이사장은 게임 과몰입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절제력을 키우는 교육과 상설 계도 시설을 마련하고 학습적인 게임물 개발, 건전한 게임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이와 상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외국 게임 업체의 잠식 견제와 모바일 게임의 과몰입 해소책을 모색하는 등 임기 3년 동안 건전하고 교육적인 청소년 게임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차이사장은 인터뷰 말미에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해 거드름이나 피우고 있으면, 한낱 악취만 풍긴다’는 뜻의 ‘自大是 一個臭字’라는 중국 속담을 소개하면서 동문 모두가 향기로운 존재가 돼 보자고 권했다.

1945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차이사장은 모교 사대 졸업 후 1970년부터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1980년부터 2011년 정년퇴임시까지 경찰대학 교수로 재직해 왔다. 한국화법학회 회장, 시민감찰위원장, 의식개혁협의회 공동대표, 국어교육과 60돌 발전기금 조성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표창, 황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국어표현론’, ‘지도자의 화법’, ‘리더의 말말발’ 등을 저술하고, 시인, 수필가로 창작 활동도 하고 있다. (美)

한국교육개발원 白淳根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제145차 이사회를 열어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白淳根(교육80-84)교수를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6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교육정책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白원장은 “글로벌 리더십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세계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확대

‘한국교육의 싱크탱크’이자 ‘파워플랜트’로 불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개원 이래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인력개발, 교원 교육, 교과서 제작, 학교 교육평가, 평생 교육 연구, 교육정보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기관’이란 슬로건에 맞춰 한국 교육의 미래 전략 제시, 고등교육 연구

강화, 교육지원 전략 수립과 글로벌 교육협력, 한국 교육지표·지수 개발 및 데이터 구축·활용 시스템 정비, 정책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신임 원장 취임에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연구·산업의 방향과 내용을 역동적으로 세웠다.

또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란 비전을 앞세워 미래사회에 필요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며, OECD, UNE-

SC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교육원조’ 외연을 넓히고 있다.

白원장은 “오늘날 지구촌의 교육환경과 개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모색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지식·인성을 학습자 주도로 함양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제도의 큰 방향과 틀

연구위원 경험 살려 학교 선진화에 주력
“글로벌 리딩 교육 싱크탱크로 도약”

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적 교육정책 추진

白원장은 “국가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임기 동안 본원에서 4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직원들과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연구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와 혁신에 걸맞은 국가교육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교육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학교 선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미션을 갖고,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연구를 현장 중심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고, 우리 교육의 기틀을 세운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해 본다.

白원장은 모교 사대 졸업 후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 사범대 기획실장, 입학본부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定)

화제의 동문

New York C

부드럽게 휘어지고!

Neil Armstrong

자유롭게 펼쳐지고!

3D로 즐기고!

HP SKILL

Total Score: 100%

꿈의 디스플레이
아몰레드에
세계가 놀라다!

Hi

Susan Kim

Hello

Jeremy Jordan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리더 삼성디스플레이

작게 접히고,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미래를 활짝 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꿈의 아몰레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듭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display.com 블로그: blog.samsungdisplay.com

삼성디스플레이 SAMSUNG



아빠가차
국민발전소

사랑해 건강온도



건강온도(18~20℃) 지키고, 에너지사랑 나눠요!

국민발전소 건설을 위한 ^{겨울} 아싸! 가자!

절전포털(www.powersave.or.kr)에서 “에너지사랑나누기”에 참여하세요.

아껴서 ‘♥나누자’ 내가 전기를 아끼면 이웃이 따뜻해집니다.

사랑한다 ‘★건강온도’ 실내건강온도 18~20℃로 건강을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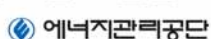
가뿐하다 ‘✱내복스타일’ 내복스타일은 나의 건강온도 지킴이!

자~뽑자 ‘🌀전열기’ 전열기 플러그는 뽑고 무릎담요를 사용합시다.

동절기 절전캠페인 시민단체 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법과 원칙 중시한 국정운영으로 신뢰 얻어

동문록 찾아서

金 滉 植 국무총리



지난 2010년 10월 1일 대한민국 제41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金滉植(법학67-71)동문이 2년 5개월간의 총리직을 무사히 완수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최초의 전라남도 출신이자 두 번째의 감사원장 출신 국무총리로 민주화 이후 최장 기간 총리직을 수행한 金총리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총리 유임론’이 나올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경청’으로 대변되는 金총리식 소통이 주목받고 있다.

金총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우치는 기회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거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서로 충분히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화합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법과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더 붙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인식을 갖고 지도자들이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 담 : 吳在錫(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논설위원

－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 봉사하는, 실속있는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간 지내놓고 나니 하셨던 말씀 중 얼마만큼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2010년 총리직에 취임하면서 ‘조용히 내리지만 땅속 깊이 스며들어 대지를 촉촉이 적셔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슬비 같은 총리가 되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80개의 공정사회 과제와 12개의 건강사회 만들기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성과는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 총리후보자 시절 호남을 배려한 인사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MB정부 최고의 인사’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부처에 대한 인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총리 유임론’이 나올 만큼 국정 능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 金국무총리는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모교 법대를 졸업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까지 30여년 동안 법조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08년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국무총

리에 임명됐다.

‘컬러가 없는 것이 내 스타일’이라고 공언했던 金총리는 조용하지만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펼쳐 ‘MB정부 최고의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법관 재직 당시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저서로는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바탕으로 출판한 ‘지산통신’을 비롯해 공동저서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해설’, ‘민법주해’ 등이 있다.

‘연필로 쓴 페이스북’으로 국민과 공감

中道低派…평소 온유·겸손·절제 생활화

한편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업무를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역할을 하는 정부 제2인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협의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을 조정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범정부적이고 국가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각 부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현장점검과 관계자 격려, 국내외 인사 면담 및 회담 등 대통령과 역할을 분담해 국정운영을 행하고 있습니다.”

－ 여러 역할 중 국무총리로서 첫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인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잘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총리가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신뢰를 끌어내기 위한 첫 걸음은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며 겸손과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할 때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임 기간 ‘법치, 신뢰, 소통’ 이런 부분을 가장 몸소 실천해 오시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 총리님의 소통은 한마디로 ‘경청’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청에 상당히 가치를 두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고자 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잘 듣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체로서 불만 등이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은 화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통의 한 창구로 ‘페이스북’을 활용하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만.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사회를 살아오면서 느낀 생각들을 소박하게나마 젊은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책이 있어서라기보다 일종의 나이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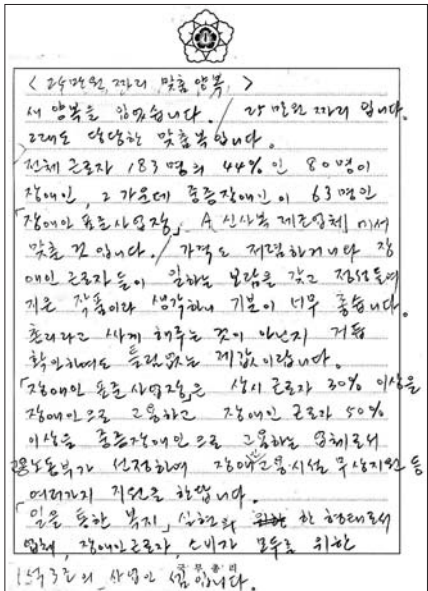
그동안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 중 ‘권군, 정말 미안하다’, ‘25만 원짜리 맞춤 양복’, ‘투병 중 새 작품을 들고 나타나신 최인호 선생’, ‘이상국가, 아틀란티스의 교훈’ 등의 글들은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 그런데 최근 활동 중단을 선언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연필로 쓴 페이스북’이 1백회가 되고 얼마되지 않아 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을 가리고 마음자락을 정리하면서 그만두기에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고민 중입니다. 만약 새롭게 시작한다면 저만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 국무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적응은 잘 되셨는지요.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 걱정이 되는데, 차기 정부에서 잘 헤아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등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부서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의 비효율성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한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고 국회와도 상호 업무 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겠지요. 특히 비상시 대통령이 소집하는 회의에 기민하게 대응할



‘연필로 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25만 원짜리 맞춤 양복’ 내용 전문

“건강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수행이 큰 보람”

☑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함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오랜 기간 총리직에 봉직해 온 선배로서 차기 총리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호흡을 잘 맞추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관과 공직자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진정성을 갖고, 여기서도 역시 ‘소통’이 중요하네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 없는 대립이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총리는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2년간의 국정 현안을 돌아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굵직한 사안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와 보람 있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구제역 발생 후 사태수습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이 계속됐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내용 및 처리과정에 대한 오해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보람 있었을 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입지 선정, LH(토지주택공사) 본사 결정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학교폭력 및 불법 사금융 등의 문제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성과를 거뒀을 때입니다. 이밖에 ‘건강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선정해 사회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와 외국 출장 중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직접 체험했을 때 총리로서 크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 감사원장직을 맡고 계시다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두 직책이 상이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와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장직은 업무 성격이 소극적·수동적인 반면 총리직은 적극적·능동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출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바탕으로 출판한 ‘지산통신’이라는 책이 눈에 띄네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연필로 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과 소통의 장이었다면 지산통신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한 소통창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법원업무에 대한 소회와 개선점, 그리고 주변 일상에 대한 허물없는 소회를 쓰면서 법원 직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호응해 줬고, 광주지방법원을 떠날 때 관사와 직원들이 책으로 묶어 준 것으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법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판결을 했는데 두 가지 판결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

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22세의 여성 근로자 사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때 담당했던 소매치기 무죄 사건입니다. 특히 소매치기 무죄 사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 평소 특별한 철학이 라든지 가치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온유, 겸손, 절제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中道低派를 자처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일이 되지만, 어딘가의 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 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국민들이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만들어 주는 제도와 틀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결국 국가와 사회가 제도나 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는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바뀌어 국민들이 더 보람있게 생각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감사원장 등 40년 공직 뿌듯

“총리에겐 허심탄회한 소통 필수”

니다.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체력관리도 중요한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살아오면서 총리직에 있던 지난 2년간 만큼 체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농구와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기초 체력을 다져 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총리직을 맡은 뒤로도 주말에 기회가 생기면 틈틈이 직원들과 등산을 즐기며 체력관리를 했습니다.”

－ 퇴임 후의 계획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대법관, 감사원장을 거쳐 총리직까지 40여 년을 쉬지 않고 공직에 계셨는데 퇴임 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래 대법관까지 쉽없이 달려왔으며, 대법관에서 바로 감사원장으로 또다시 국무총리까지 쉬지 않고 40여 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아 왔습니다. 우선 당분간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지요.

총리직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 모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후배들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의 인사파동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품격이라고 할까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성실하고 나름대로 올곧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는 바 또한 크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에 더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동창회 및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모교 동문이 됐다는 자체가 본인에게도 행운이지만 나라에도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가진 능력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도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창회는 동문들을 결집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차鉉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수지 여사에 명예박사학위 국제 인권 증진·교육발전에 기여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2월 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버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명예 교육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본회 林光洙회장, 孫

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각 단과대 학장 및 보직교수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버마 정당(민족민주연맹, NLD) 대표이자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수지 여사는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했다. 또 버마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수지 여사는 1991년 노벨평화상, 2002년 유네스코 인권상, 2004년 광주인권상, 2009년 국제사면위원회 양심대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버마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웅산 장군의 막내딸로 태어난 수지 여사는 옥스퍼드대 졸업 후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지냈다. 1988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잠시 귀국한 수지 여사는 고국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가택연금 등 15년간 어려움을 겪은 수지 여사는 2010년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후 지난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교육과 보건으로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양곤대학 등 버마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모교는 1948년 첫 수여 이래 넬슨 만델라 前남아공 대통령, 金壽煥추기경, 사사키다케시 前동경대 총장, 潘基文 UN사무총장, WHO 故 李鍾郁 前사무총장 등 총 1백11명(외국인 1백명, 한국인 11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첫 직원 공채 실시...45명 합격 고졸 채용 '사회적 책무' 수행

모교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인화 이후 처음 실시한 직원 공채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공채에는 총 2천6백36명이 지원,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45명을 선발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 고졸 채용을 추진, 고교장 추천 및 면접전형을 거쳐 행정과 전기 분야에서 총 2명의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채용은 지난해 법인 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교는 앞으로도 고졸 채용 등을 통해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앞장서는 동시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채용과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유연한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서 2년 연속 국립대 1위

모교는 2012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국립대학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의 국가품질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경제 13개 부문·61개 업종·2백74개 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고객 기대수준, 고객 인지 품질, 고객 인지 가치, 고객 불평률 및 고객 충성도 등 6개 항목을 측정·평가한다.

모교는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지,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 세계적 연구 성과 산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명품 공개강의(OCW) 앱 개발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林哲一)는 모교의 우수한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대 OCW(Open Course Ware)'를 개발했다. 이 앱은 모교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무료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공헌을 위한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발됐다.

2011년 개발한 '서울대 명품강좌 시리즈'를 비롯해 38개의 국문 콘텐츠와 13개의 영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 OCW'는 '강좌보기'를 통해 학문 영역별로 강좌를 볼 수 있으며 '나의 강의실'을 이용해 즐겨 찾는 강좌 목록을 저장해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천강좌'에서는 학습자 별점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인기 강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대학원

모교서 신년모임 열어

환경대학원(원장 李道元)은 지난 1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명예교수, 교수, 직원, 학생 등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李道元(식물71-78)원장의 축시낭



독으로 시작해 안태홍(환경조경12입)학생회장의 새해인사, 金安濟(물리57-62)·楊秉彝(농경제64-

68)명예교수의 신년덕담, 金基浩(건축65-69)명예교수의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호대 학장에 朴賢愛교수 임명



지난 1월 10일 모교 간호대학에 간호학과 朴賢愛(간호76-80)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차학장은 모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와 보건통계·보건정보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2년 모교 간호대학 간호정보학 전공 교수로 부임했으며 부학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간호정보학회장과 세계의료정보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간호학술원 정회원(FAAN)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대 학장에 金炳道교수 임명



지난 1월 23일 모교 경영대학 겸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에 경영학과 金炳道(경영78-82)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김학장은 모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뉴욕대에서 석사학위와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6년부터 모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경영학 분야 대표 학술지인 '마케팅 연구'와 'Seoul Journal of Business'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와 MOU 100세 사회정책연구

모교는 지난 1월 16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100세 사회정책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100세 사회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0세 사회 정책연구센터'를 행정대학원 내에 신설하고, 앞으로 100세 사회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등의 문제를 핵심적이며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100세 사회 정책연구센터'에는 학제 간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해

모교 연구진과 더불어 노사정위원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경영대학

‘청소년 경영캠프’ 열어

경영대학(학장 崔 燾)은 지난 1월 9~10일 관악캠퍼스에서 경기복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캠프'를 실시했다.

비용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경영대학 홍보대사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진행된 '청소년 경영캠프'는 1박2일 동안 캠퍼스 투어와 더불어 비전 특강, 경영학과 소개, 팀별 경영 시뮬레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경영캠프’는 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경영학과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崔 燾학장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조해온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과 비전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학교측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술관

No comment展

미술관(관장 權寧傑)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 전시실에서 2013년 첫 기획전으로 'No comment'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15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이미지와 이미지, shot과 shot 사이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의미를 관람객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난 9일 열린 개막 행사에는 邊昌九교육부총장, 權寧傑미술관장, 李舜鍾미술대 학장을 비롯한 2백30여 명이 참석했다. (香)

모교 발전기금 출연 러시... 봄이 오는 소리

동진세미켄 李富燮회장, 20억원

모교는 지난해 12월 28일 총장실에서 동진세미켄 李富燮(화학공학56-60)회장(사진右)과 '발전기금' 및 '개도국 글로벌 교육협력기금'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른 총 20억원의 기금 중 10억원은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발전에 쓰이며, 나머지 10억원은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개도국 교수 및 학생 지원에 사

용된다.

李회장은 학술·장학·기자재 지원 등 모교 발전에 힘써 2006년 공대 발전공로상, 2011년 모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했으며, 한국에너지클럽 회장,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 '인간과 환경의 행복한 조화'라는 경영철학을 토대로 동진세미



켄을 정밀화학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육성시키며 기업이익을 모교와 사회로 환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李光熙동문, 희망장학기금 5억원

모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李光熙(지리59-63)동문(사진右)은 지난 1월 11일 모교 희망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추가 기부했다.

李동문이 지난 2010년 출연한 2억원으로 조성된 육지수·이광희 희망장학기금은 모교 문리대

에 지리학과를 신설한 국내 대표적인 경제지리학자 陸芝修교수를 기리고, 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이고 있다.

李동문은 한국관광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시드니·로스앤젤레스 지사장 등을 지내며 국내 관광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국민포장(민간외교 유공) 등을 수상했다.

크로엔리서치 朴永燦대표 학술기금 1억원

크로엔리서치 朴永燦(수의학81-85)대표(사진)가 모교에 1억원의 학술기금을 출



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협약식에서 吳然天총장, 朴永燦대표를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기금을 크로엔리서치(CRI) 수의과대학 학술기금으로 지정하고 수의과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

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朴대표는 2007년부터 수의과대학 학술기금,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

메가스터디 孫主恩회장 기초과학 연구에 1억원

메가스터디 孫主恩(서양사학81-87)회장(사진)은 지난 1월 14일 모교에 1억원을 쾌



적했다.

기금 출현에 대해 孫회장은 “지

난해 11월 발전기금이 주최한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가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취지와 기금모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후원기금은 세계적인 석학의 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후속세대를 이끌 석·박사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모교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尹鍾龍위원장과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등 뜻있는 후원자들의 기부를 시작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孫회장은 지난해에 중앙도서관 신축기금 1억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美)

재학생의 소리

“국악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어요”

모교 정악동아리 興民樂은 1980년 9월 25일 단소풍류회란 이름으로 창립, 올해로 서른세 살이 됐습니다. 국악의 여러 분야 중 과거 궁중 음악의 일부와 민간 상류층이 연주하던 모든 음악을 통칭하는 正樂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악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단소, 양금, 생황, 장고 등 많은 악기들을 사용해 연주하지만 여민락은 주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을 배워 다섯 악부로 나뉘며 단소나 장고를 포함시켜 정악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여민락의 각 악부는 악기만 큼이나 독특한 그들만의 특징을 가집니다. 우선 가야금은 12개의 현을 뜯거나 튕겨 연주하는 악기로 낮은 음부터 중간음, 높은 음까지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정악에서 대체로운 모습의 꽃 같은 역할을 합니다. 百樂之丈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거문고는 다양하게 꾀를 짰어 다섯 악기 중에서 가장 넓은 음역을 소화 가능하지만 주로 정악의 아래 음을 맡아 음악이 보다 탄탄하고 힘 있게 연주될 수 있게 하는 악기입니다.

대금은 통일신라시대에 중금, 소금과 함께 삼죽을 구성하는 악기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크고 독특



鄭智允
(화학생물11입)
여민락 회장

해 한국 전통 관악기 중 최고봉이라 불립니다. 편종과 편경이 포함되지 않는 합주에서는 모든 악기가 대금의 기본음에 맞춰 조율해 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피리에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가 있는데 여민락에서는 향피리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가는 黃竹 한끝에 海竹으로 짚은 서를 꽂아서 부는 향토적이고 애절한 느낌의 음색이 특징입니다.

해금은 중현과 유현이라 불리는 두 현으로 소리를 내는 현악기지만 지속음을 내기 때문에 관악기의 선율을 따라 연주해 관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음색이 구슬프면서 경쾌하기도 해서 정악, 민속악뿐만 아니라 창작곡과 크로스오버 음악에도 많이 쓰입니다.

興人들은 신입생으로 지내는 1년과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집행부로서의 1년을 가집니다.

학생이 사랑받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랑받는 이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경쟁에서 꼭 1등하지 않아도 이웃의 슬픔을 함께할 줄 아는 친구가 있기에, 무한경쟁시대에도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는 학교가 있기에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3대 대형 국책사업 전관왕 달성은 우리대학의 성과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려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가슴 따뜻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3대 대형 국책사업 :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CE LINC
UNIVERSITY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GOLDEN
GRAND
SLAM

2010 SKYTRAX

2009 ATW

2011 Global Traveler

2012 Premier Traveler

2012 Business Traveler

올해의 항공사
5관왕

세계 최고 항공사 상을 휩쓴
하늘 위의 월드스타

2009~2011년 <올해의 항공사> 수상으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아시아나항공이
2012년에도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 2012년 Business Traveler 공식 수상 명칭은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입니다



백리 깊은 나무가
천년을 이어갑니다

거친 비, 바람에도 버텨온
고려아연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고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일하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명예회장 최 창 결(상대 18기), 최 창 영(공대 64入)
- 회 장 최 창 근(공대 66入)
- 사 장 이 의 룡(상대 24기)

 고려아연(주)
www.koreazinc.co.kr

콩트 릴레이

햇 발 질

崔 文 僖(본명 崔慶林 지리교육54-58)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맵고 아린 소금바람이 살갗을 흘린다. 바람살을 등지고 돌아서자 눈앞이 빙글 돈다. 한때 여물게, 잘 짜집기됐던 일상의 질서와 소중하게 갈무리했던 모든 가치가 일시에 나를 배반하고 돌아선 때문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세상과 집의 경계인 현관문을 탕 닫고 나서던 순간의 느낌은 참 답했다. 금방 들어가서 없었던 일로 지워 버릴 수 있는 시간의 막간이 내 발등을 넘 나들었다. 그런데도 나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문턱의 내부가 아닌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갑자기 막막한 낭패감이 나를 휘감는다.

“

별로 나부대거나 대거리에 능한 여자는 아니다.

말과 웃음을 아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난 체하거나 자발 나게 치맛바람을 날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웬지 그 서투름이 못마땅하다.

딱히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그냥 조금 지저웠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 5년부터다.

”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출항을 알리는 제주행 페리호의 무적소리가 나를 재촉했지만 웬지 저 배를 타는 순간 나의 일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에 휩싸인다. 불안하다는 느낌은 내 위치에 대한 흔들림인지도 모른다. 내 사전에서 오래전에 발라내 버린 그놈의 불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에 톡 불거져 나올게 무엇이람.

짧은 패딩 점퍼 아래 허벅지와 종아리에 시린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섬에 갈 계획은 없었다. 갑작스러운 출행이다. 연말이어서 제주행 저가 항공권까지 매진 된 상태였다. 모처럼 KTX를 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목포까지 내려온 길이다. 절로 발걸음이 서울역으로 달려 간 건 내 무의식 속에 내장된 어떤 발미 같은 건지도 모른다. 정작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도 나를 임신했을 당시 어머니가 서귀포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귀나 눈은 늘 그곳에 잠시 머물곤 했을 것이다.

갯바람이 실어내는 차가운 기류가 영하의 서울 기온보다 더 시리고 아리다. 한과 주의보라던 기상 캐스터의 되바라진 목소리가 귀청에 감겼다. 주방으로 나가던 아내가 슬그머니 다가와 채널을 돌렸다. 같은 내용의 기상예보를 하는데도 아내가 보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나 태도가 맑고 단아하긴 했다.

‘아무데나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내말을

조금은 느슨하고 할겁게 대처하는 나의 성격이 승진에 걸림돌이 됐을 거라는 그녀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금융계에 청춘을 내다 버리고 어정쩡한 나이에 퇴직한 이후부터 어쩐지 그녀의 눈길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하찮은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워 그녀의 신념이랄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휘저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랬다. “내가 청소할 땐 비켜달란 말이예요.” 그놈의 진공청소기가 내 발등에 물려 자발거렸다. “지금 신문 읽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녀가 맞받았다. “지금 청소하는 거 안 봐요?” “그놈의 청소는 왜 만날 극성이야?” 입안에서 우물거리다가 기어이 내 입에서 “청소 말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목소리가 툭툭 부러졌다. 그녀의 동작이 일시에 정지하면서 날 선 시선이 내 대머리에 날아와 쫓겼다.

별로 나부대거나 대거리에 능한 여자는 아니다. 말과 웃음을 아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난 체하거나 자발스럽게 치맛바람을 날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웬지 그 서투름이 못마땅하다. 딱히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그냥 조금 지저웠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 5년부터다. 과마할 돈이 아깝다며 뽀뽀한 말총머리를 묶고 다니는 그녀가 한심했고 겹눈이 보였고 상한 우유처럼 느끼한 구토증을 밀어 올렸다. 한 계절에 한가지 못만 걸치고 주방에 서서 꿈

지락거리는 그녀를 보면 웬지 목구멍에서 쉼내가 치밀었다. 내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일 년에 두어 번 부부동반 모임에 그녀가 걸치고 나가는 노티 풀풀 나는 풍성한 코트나 스웨터 자락이었다. 내 눈에는 질박한 삶의 모습으로 보이기 이전에 추레하고 초라하게 보였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에도 그녀는 환기를 구실로 망창까지 열고 이불과 욕조 매트까지 탈탈 탄다. “춥잖아. 빨리 닫아” 하면 ‘노인 냄새가 집에 배면 안 된다’는 그녀의 녀살이다. “노인 냄새? 나한테서 노인 냄새가 난단 말이지?” 들고 있던 신문지를 획 집어 던지자 부챗살 모양으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다. 치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소리나게 문을 닫는다. 가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몰수한 행동이 겨우 버텨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내 허술한 위치가 만들어낸 자격지심일까? 불시에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결합이 분노로 덧씌우고 분노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미”라고 했다. 적절한 말이다. 퇴직 후 한동안 집구석에 침겨한 채 좋은 기억보다 불쾌한 기억들로 늘 가슴은 술렁거렸다. 식욕도 없고 잠 못 자는 나날이 보태지면서

낭패감이 나를 휘몰았다. 호주머니를 털었지만 서귀포행 리무진 티켓을 끊기에는 모자란다. 많은 생각들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머릿속에서 아우성쳤다.

결었다. 방향도 목적도 없이 걷다가 다시 집에 전화를 넣었다. 신호음이 떨어지자 나는 거두절미하고 용건부터 말했다. “카드를 두고 왔어.” 등기로 부쳐달라는 말과 함께 “여기 중문리 H호텔이야” 했더니 그녀가 뜬금없다는 목소리로 “거긴 왜요?” 했다. 짹한 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나는 날름거리려는 혀를 지그시 깨물었다. “카드는 등기로 부치고 만약을 위해서 송금도 좀 해 주라.” 객실 요금에 여분의 돈을 얹어 송금해 주면 내가 찾는 방법이다. 그럭저럭 잠자고 먹는 일은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쥐꼬리만큼 받는 연금을 관광지의 호텔 숙박비로 내다 버릴 수는 없다. 그것보다 나를 비틀리게 하는 건 세상과 단절된 무료함이다.

일상적인 스케줄이 어긋나 버린 것에 대해 또 역정이 난다. 아침 식사 후 그 자리에 앉아 두 개의 신문을 낱낱이 읽는 일이었다. ○○일보의 S교수 칼럼이나 시가 있는 아침, 삶의 향기와 같은 읽을거리, 그리고 내가 애독하는 J신문의 사설과 A23면의 다양한 기사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디게 만드는 노년의 비타민이다. 신문은 어디에도 있다. 그러나 내 집, 그 식탁 내 결상에서 읽었던 신문하고는 시간의 질감이 다르다. 무디고 텅텅하고 살랑거리지 않았지만 그 평과집했던 깔개가 다시없는 실크 카펫처럼 여겨지는 건 다만 신문 읽기에 국한된 건 아니다.

낭만적인 겨울여행이 외로운 떠돌이로 전락하자 그토록 그리던 서귀포 바다나 호텔 커피숍이 돌연 무채색으로 변했다. 바라보는 사물이 변한 게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어긋난 눈길이 사시(斜視)였음을 문득 자각하는 순간이다.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예기치 못했던 생의 균열이 느껴졌다. 짝 갈라진 틈새로 선홍빛 싹뿔이 뻗는다.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건 아닐까. 고무줄처럼 신축성 있고 유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시간이 요지부동한 절근처럼 구부러지지도 휘어지지도 않는다. 칼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바심이 일었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세상의 이면이 돌연 복병이 돼 출몰했다. 하찮게, 성가시게, 삶의 익숙함에 진저리쳤던 그런 것들이 소소한 일상의 덕목이었고 실체감이었음이 자명해진 순간 내 어깨에 힘살이 스트르 빠졌다.

주민증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반경을 사슬처럼 묶었다. 등기로 날아온 카드를 받았지만, 이미 분실신고가 돼 있어 출금이 안 됐고 송금된 돈은 은행에서 찾을 수 없었다. 주민증이 관건이었다. 또 전화를 넣었다. “어떻게 좀 해봐.”

그녀가 말을 잘랐다. “우리 동네 동화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 뒀어요. 그러니까 제주시 시청에 가서 우리 동회장하고 연결을 부탁해 보라고요.”

“미련통이가 머리 한 번 잘 굴렸네” 속내 말로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꿈지락거리게 아닌가. 햇발질에 길들여진 발부리가 웬지 간질거렸다.

“여보, 나 8시에 김포에 도착해.” 여보라는 호칭은 미안함에 대한 공식은 익숙할 일까. 햇, 햇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공중전화 부스를 가득 메운다.

동 정

수 상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식에서 하와이한인회로부터 공로패 수상.

▲李忠熙(물리54-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최근 제11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

▲李康淑(기약61줄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지난 1월 10일 미국 미시간대 한국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朴聖泰(의학58-64 한국음악협회 명예이사장)=지난 1월 14일 '2012 한국음악상' 시상식에서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상 공로대상 수상.

▲李正仁(광산59-63 모교 여느지 시스템 공학부 명예교수)=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인민정부가 선양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선양 장미상' 수상.

▲吳世榮(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2월 7일 경주시와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5회 목월문학상 수상.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12월 27일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DMZ 평화상'(학술연구 부문 단체) 수상.

▲金基爽(교육67-72 모교 교육학과 교수)=지난 1월 26일 미국 위스콘신대 한국동문회 신년회에서 자랑스러운 위스콘신 동문상 수상.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 구협의회 사무국장)=최근 민주평통 우수협의회로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

▲金用民(전자공학71-75 포스텍 총장)=지난 1월 26일 미국 위스콘신대 한국동문회 신년회에서 자랑스러운 위스콘신 동문상 수상.

▲李聖八(전기공학72-7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최근 천리안 위성 통신탑재체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수훈.

▲姜大鉉(서양사학72-76 前駐포르투갈 대사·국제교류증진협회장)=지난 1월 23일 주한 포르투갈 대사에서 양국 우호협력 증진 공로로 대십자 훈장 수훈.

▲高廷植(화학공학73-77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지난 1월 2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9회 일진상 수상.

▲李珉柱(회화76-80 한국미협 국제분과위원장·한국화가)=최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전시회에서 테일러재단이 수여하는 테일러상 수상자에 선정.

▲金根秀(경영77-81 前2012여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지난 1월 22일 여세계박람회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수훈.

▲朴太紘(화학공학77-81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지난 1월 2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8회 해동상 수상.

▲崔海震(대학원83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단장)=최근 아리랑 3호 위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수훈.

▲權俊壽(의학78-84 모교 정신과 학교실 교수)=오는 3월 2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6회 아산의학상(임상의학부문) 수상.

▲梁君虎(기계공학81-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최근 천리안 시스템과 본체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수훈.

▲鄭鍾卿(약학81-85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오는 3월 2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6회 아산의학상(기초의학부문) 수상.

▲金忠漢(AMP 19기 前한국일보 부사장·한국이앤엑스 회장)=지난 12월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산업발전과 전시 산업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 산업훈장 수훈.

▲李東基(IFP 7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전남본부장)=지난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스포츠인 권상 금상 수상.

인 사

▲辛東韶(임학53-57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최근 재단법인 소호문화재단 이사장에 추대.

▲李健介(법학59-63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지난 1월 30일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모색하는 학술·연구 단체로 출범한 동아시아센터 이사장에 선임.

▲李康國(행정63-67 前헌법재판소장)=지난 1월 23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선임.

▲李熙範(전자공학67-71 한국경영자총협회장)=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林玄鎭(사회67-71 모교 사회학과 교수)=최근 임기 2년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차기 회장에 선임.

▲李茂夏(축산67-75 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1월 22일 에티오피아 국립 아마다대 농과대학 학장에 선임.

▲柳和善(사회68-72 前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前과주시장)=지난 1월 20일 임기 3년의 경인여대 제7대 총장에 임명.

▲金玄中(공업교육70-74 한화건설 부회장)=지난 1월 24일 대한사격연맹 대의원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임.

▲朴聖姬(가정관리73-77 前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세명대 초빙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공학자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KITIS 산학연정보사를 통해
2주간 Tria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와 전공,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힘든 공학자들을 위해
IEEE와 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공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네 가지 파트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세 가지 Level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金奇南(전자공학77-81 前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최근 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겸 OLED사업부장(사장)에 선임.

▲鄭院燮(법학77-81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월 25일 국회 정치쇄신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韓範是(전기공학78-82 SK C&C 신성장사업부문장)=지난 1월 28일 SK C&C ICT사업장(부사장급)에 선임.

▲宋賢鎬(대학원82졸 아주대 교수)=최근 임기 2년의 제3기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善堉(대학원84졸 KIS재권평가 사장)=지난 1월 11일 한국증권분석사회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임.

▲金鎮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1월 16일 중앙일보 논설주간에 선임.

▲李勉宰(정치80-84 법무법인 다온 대표변호사)=지난 1월 21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총장에 선임.
▲鄭眞和(가정관리83졸 모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지난 1월 25

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南閔佑(기계공학80-84 다산네트웍스 사장)=지난 1월 21일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추대.

▲朴鍾栢(사법81-85 법무법인 에이팩스 대표변호사)=최근 한국취브닝동창회 회장에 선출.

▲徐大憲(의학81-87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최근 국내 최초로 세계여드름연구회 종신 회원에 선임.

▲鄭星姬(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여기자협회장)=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李秉吉(행대원83-8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월 4일 국회 사무차장에 임명.

▲林秉圭(행대원83-85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월 4일 국회 입법차장에 임명.

▲金東完(행대원83-88 국회의원)=최근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동문회 회장에 추대.

▲李旺垓(의학86-92 명지병원 이사장)=지난 1월 22일 창립된 한국의료수출협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

▲朴相熙(AMP 26기 前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포럼 회장)=지난 1월 17일 중소기업진흥회 제7대 회장에 추대.

▲趙亮鎬(AMP 29기 한진그룹 회장)=지난 1월 24일 대한탁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재선출.

▲申正澤(AMP 48기 세운철강 회장)=최근 국내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여한한국해양구조협회 초대 총재에 선출.

▲李潤載(AMP 48기 흥해해운 회장)=지난 1월 4일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28대 회장에 선임.

▲池大燮(AMP 56기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지난 1월 22일 삼성그룹의 20여 개 프로·아마추어 스포츠팀을 관리·총괄하는 삼성스포츠단 사장에 선임.

▲李 沁(ACAD 32기 대한노인회장)=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田炳憲(ACAD 51기 국회의원)=지난 1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e스포츠협회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

▲鄭鍾煥(SGS 3기 前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前국토해양부 장관)=지난 1월 16일 아시아투데이 상근 부회장에 선임.

행 사

▲李宗勳(전기공학53-57 前한국전력공사 사장)=최근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되기까지의 엔지니어들의 노력을 소개한 '한국은 어떻게 원자력 강국이 되었나'(나남판) 출간.

▲金東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지난 1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청에서 '새 정부와 시민사회·자원봉사'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金允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월 22일 소설가故朴婉緒(국문50입) 동문의 2주기를 기념해 추모글을 담은 '내가 읽은 박완서'(문학동네판) 출간.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1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선농회 신년교례회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12월 28일 전

국 18개 시도지부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 훈장 및 포상 시상.

▲朴煥太(법학57-61 前국회의장)=지난 1월 22일 경남 남해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정치 인생과 한국정치사를 정리한 '和-염소의 지혜이야기'(중앙북스판) 출판기념회 개최.

▲韓永愚(사학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최근 조선시대 양반뿐 아니라 평민과 서얼 등도 과거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연구서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판) 출간.

▲洪承昊(불문57-62 前駐자이르대사·도봉문인협회장)=최근 서울도봉도서관에서 '도봉문학' 제10호 출판기념회 및 제7회 도봉문학상 시상식 개최.

▲玄敬大(행정60-64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지난 1월 2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외교비전'을 주제로 신년하례세미나 개최.

▲李炳學(회화62-66 중랑미협 회원)=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예술인촌 공립미술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에 출품.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 등 명문대 동창회 독점 제휴사 엔노블

기업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 大賞 시상

Korea Economy Enterprise Award 2012

서경대학교

2013 癸巳年, 서울대 동문 가족 모두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문연상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 성훈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4층리더스마크 4006호
[뉴저지지사] 28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하탄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RN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孫 郁(기계공학63-67 한국형 리더십연구회 회장)=지난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회 감사나눔페스티벌 개최.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지난 1월 2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玄許錫院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趙英男(성악64입 가수)=지난 1월 19일~2월 16일 서울 메가박스 목동점에서 화투, 바둑, 대국기 등을 활용한 작품으로 개인전(안녕, 메가박스!) 개최.

▲金夏中(중문65-69 前駐중국 대사·前통일부장관)=최근 외교현장의 경험을 모은 책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비전과리더십

刊) 출간.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1월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 칭다오(靑島) 朴鍾先 前총영사를 초청, 'G1 국가를 위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위상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화빙화회장)=최근 경기도 양평군 국수역 주변에서 힐빙 세미나와 힐빙 콘서트 개최.

▲孫海鎰(잠사67-75 서초문인협회 회장·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최근 서울 서초구청에서 제10회 서초문학상 시상식 및 서초문인들의 작품모음집 '문학서초' 제16호 출판기념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前KBS 사장·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鄭英善(가정관리73졸 한국차문화연구소장)=최근 예학과 의례, 다도문화 전반을 다룬 '예다문화연구' 제18권 발행.

▲金貳煥(신대원72-75 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 이사장·연대원 동창회장)=최근 강화도 수련원에서 불우·소외계층 청소년을 초청, 미디어영상교육 및 캠퍼스 실시.

▲申鳳吉(외교74-78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지난 1월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중·일 기업인 신년교류회 개최.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대토론회 및 한국재정학회 신년하례회 개최.

▲金成五(제약81졸 메가넥스트 대표)=지난 1월 20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성공 전략을 담은 '육일약국 갑시다'(21세기북스刊) 출간.

▲李桐弼(대학원81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지난 1월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3' 발표대회 개최.

▲金裕煥(법학78-82 이화여대 교수·한국법제연구원장)=지난 1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경희대 오준근 교수를 초청, '행정심판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입법정책포럼 개최.

▲林爽幸(건축80-85 이화여대 교수)=지난 1월 21일 건축 비평서 '한국 현대건축의 지평' 제1권 건축가론·문화비평과 제2권 건물 비평(인물과사상사刊) 출간.

▲이태정(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스트라빈스키, 프 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정유진(기악98-0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임지희(기악00-04 바이올리니스트)=지난 2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드뷔시, 라벨 등의 작품

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金漢圭(ACAD 20기 21세기 한·중교류협회장)=지난 1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정책포럼에서 '한·중 새 정부 출범 계기로 본 양국관계 발전 방안'의 주제 발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1월 2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통일항아리 채우기 위한 불교지도자 발대식 및 신년하례법회

개최.

▲薛勇洙(ACAD 53기 前세계일보 사장·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지난 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 개최.

▲李曉湖(ACAD 53기 前영성미디어방송사업단 회장·루이힐스CC 회장)=지난 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로부터 명예시민권 받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鮮于良國(치의학47졸 모교 명예교수)=1월 6일 별세(94세)
- ▲朴旻鎬(전기공학47졸 모교 명예교수)=1월 22일 별세(89세)
- ▲趙大衍(상학45-53 前극동해상 대표)=12월 21일 별세(87세)
- ▲閔庚天(정치46-50 前홍익대 총장)=1월 5일 별세(89세)
- ▲鄭麟永(법학50-54 前새한중금 회장)=1월 2일 별세(83세)
- ▲朴起緒(행정50입 재미건축가)=1월 17일 별세(80세)
- ▲吳在植(종교52-57 前월드비전 회장)=1월 3일 별세(80세)
- ▲鄭昌烈(국사56-63 한양대 명예교수)=1월 20일 별세(76세)
- ▲方達浩(치의학58-63 방치과의원장)=1월 13일 별세(78세)
- ▲柳海仁(행대원59-61 前구로고 교장)=1월 1일 별세(89세)
- ▲朴壽文(화학60-64 울산과기대 석좌교수)=1월 12일 별세(72세)
- ▲金有來(상학60-66 前대한생명 전무)=1월 16일 별세(73세)
- ▲林慶倍(생물교육61-66 前용산고 교장)=1월 15일 별세(75세)
- ▲金午鉉(보대원69졸 천마광유 부사장)=1월 1일 별세(83세)
- ▲辛英惠(농가정69-74 前창덕여고 교사)=1월 7일 별세(63세)
- ▲明昌根(경영71-75 前산업은행 부장)=1월 13일 별세(59세)
- ▲李愚宰(사법84-8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월 10일 별세(48세)
- ▲金乙泰(AMP 19기 前두레그룹 회장)=1월 3일 별세(73세)
- ▲金潤鎬(ACAD 5기 前합참의장)=1월 12일 별세(83세)
- ▲元聖熙(ACAD 40기 前수출산업공 이사장)=1월 9일 별세(76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좋은사랑만다 결혼해두오

성원회원수 26,104명 (2013년 1월 14일 기준)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김혜정(82入독여독문)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포결혼정보회사
1577-8333



 **진주남강유등축제**
Jinju Namgang Yudeung Festival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제기간 : 2013년 10월 1일 ~ 13일)

국민이 **노련**해지는 **방**을
디자인합니다

생활에 불편한 법, 기업하기 불편한 법, 어려운 법!
법제처에 알려주세요! 국민과 함께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02) 2100-2763 <http://community.kglaw.go.kr/BP>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02) 2100-2762 <http://www.moleg.go.kr>

www.dw21.co.kr

 **동원개발 (주)**
Landscape Architecture

포스코와 함께한, 푸른 제철소 만들기 25년
Globe, Ground, Green & Steel

For the Better Life
For the Better Environment
For the Better World

사업분야 / 실적

 POSCO 본사	 제철소	 직원주택단지
 교육시설 - 제철유지원	 문화시설 - 아트홀	 체육시설 - 포항스틸러스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71-4 해운빌딩 2층 TEL : 054-277-2711 FAX : 054-281-2690

국제규격 36홀 (회원제 18홀 7,237yds / 대중제 18홀 7,095yds)

“귀하를 힐마루 컨트리클럽 창녕으로 모십니다.”
(대구 · 창원 30분거리)



T (055) 520-8000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1082 www.hillmaru.com

힐마루 컨트리클럽

2011년 YTN 선정 10대 골프장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명품 36홀
1박2일 숙박이 편리한
특급호텔 수준의 골프텔 48실
200여명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대연회장
전국 3%만이 분출되는 100%
황산염온천의 클럽하우스

Hillmaru
COUNTRY CLUB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전남, 국립목포대학교가 꿈을 키웁니다.

<http://sign.mokpo.ac.kr>

전라남도 의과대학유치 서명운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po  국립목포대학교



사랑이 만감습니따
휴먼시티 수원

‘맛있는 관광’
수원화성

수원시
SUWON CITY

맛있는 인생, 맛있는 추억
‘수원화성’이 만들어 드립니다

www.suwon.ne.kr

신 간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

— 金哲洙 지음



가 그동안 발표한 논설들을 모아 책자로 엮었다.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은 저자가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신변잡기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정치의 이상’이란 제목 아래 우리 헌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논설을 비롯해 헌법재판의 활성화, 통일헌법의 제정, 법철학, 법학교육, 각종 학회활동, 시론과 에세이, 인터뷰, 서평, 연설문 등을 수록했다. 책 말미에는 본보에 소개한 ‘관악준주’도 눈에 띈다. (소명출판·값 80,000원)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박정희

— 安秉勳 엮음



도서출판 기과량 安秉勳(행정 57-61 본회 부회장)대표가 최근故 朴正熙대통령 집권 18년6개월 동안의 기록을 사진으로 정리한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박정희’를 출간했다.

1960, 70년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상황에서 朴正熙대통령이 내려야 했던 결단들과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된 시대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재임 기간 그가 행한 선택이 숱한 고민의 결과는 아니었는지를, 朴正熙대통령의 업적이 아닌 연보 위주의 방대한 사진자료를 통해 묻는다. (기과량·값 58,000원)

해바라기와 구두

— 李彰國 지음

중앙대 영어교육과 李彰國(영 어교육60-64)명예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네 권의 수필집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수필 40편과 새로 쓴 작품 10편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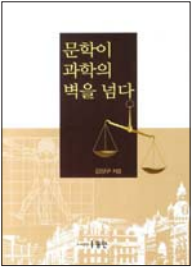


그가 남긴 아름다운 수필문학의 맥을 묵묵히 충실하게 이어온 저자는 이 선집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수필문학의 남다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한 수필가가 지나온 긴 삶의 궤적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 글들은 우리에게 좋은 글을 읽는 은근한 기쁨과 재미를 선사한다. (아모르문다·값 15,000원)

문학이 과학의 벽을 넘다

— 金相九 지음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金相九(영 어교육60-64) 명예교수가 다양한 이론들과 개념들에 의해 14

편의 영미소설을 분석한 책. 문학·철학·과학 공유의 처소와 과학 이론의 문학적 원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소설들의 작가들 가운데 에드가 앨런 포와 도날드 바셀미를 제외하곤 모두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작가들을 선택한 것은 작품들의 비중과 예술성 그리고 작가들 개개인의 작품들의 연속성과 상호관련성 때문이다. (동인·값 28,000원)

말(馬)

— 權武一 지음



소설가 權武一(철학64-68)동문이 집필한 ‘말: 한마공신 김만일과 말이야기’는 4백여 년 전 제주에 살았고, 무려 1만마리의 말을 키운 사람, 金萬鎰 공의 행적을 찾아 나선 역사 소설.

權동문은 이 소설에서, 다가올 전란에 대비해 군사양성과 전마육성을 주장한 율곡 선생을 떠올렸고 옥일승천하는 만주세력을 염려해 성숙한 외교정책을 폈던 광해군을 재해석했다.

이 소설은 토박한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던 제주 사람들이, 관리의 착취와 苛斂誅求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고발한다. (평민사·값 12,000원)

국부의 조건

— 金泰由·張文碩 지음



사학과 張文碩(서양사학87-92)교수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해 국부가 증대하는지 설명한 책.

농업사회, 상업사회,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특정한 국가 및 민족의 발전 양상을 가늠하고 측정했다. 저자는 과학 기술 성과를 반영한 경제 성장 모형의 연구를 통해 인류 및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의 원리를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실증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42,000원)

한국의 노숙인

— 具仁會·鄭根植·申明浩 편저



경제연구센터 申明浩(인류76-80)소장 등이 한국사회의 압축적 발전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 문제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선으로 조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노숙인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노숙인 문제가 등장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노숙인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한층 악화된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쪽 편에서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는 노숙인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생애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노숙인 삶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노숙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서울대출판문화원·값 39,000원)

고급 커뮤니케이션

통계분석론

— 權相禧 지음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權相

모교 공대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金泰由(자원공학 70-74)교수와 영남대

공연

鄭玲安 첼로 독주회

— 2월 23일 예술의 전당



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평택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鄭동문은 이날 브람스의 소나타를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李賢庭 첼로 독주회

— 2월 25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李賢庭(기악96-00)동문(사진)이 2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연다. 이니스 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인 李동문은 이날 브람스,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鄭盛文 피아노 독주회

— 3월 2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鄭盛文(기악 92-96)동문(사진)이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주 및 문헌 박사학위를 취득한 鄭동문은 이날 베토벤, 스크리아빈, 쇼팽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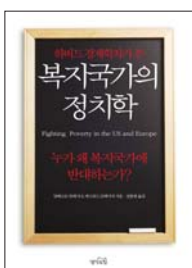
연구 저널에 실제로 통계분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새롭게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0을 적용한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다변량분석,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과 응용에 관한 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컴윈미디어·값 20,000원)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

— 전용범 옮김



수과 에드워드 글레이저 석좌교수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사회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나

타내게 됐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학제간 연구방식을 취하며 좁은 의미의 경제 변수부터 정치 제도,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 전쟁의 효과, 가난한 계층에 대한 태도 등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의 결과물을 담아냈다. (생각의힘·값 18,000원)

내 아이의 평생행복을 결정하는 아이의 뇌

— 金朋年 지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기능, 감성기능, 실행기능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뇌 전체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양육과 교육 솔루션을 통해 행복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뇌 발달의 시기에 맞게 아이와의 스킴십, 책 읽기, 애착 놀이, 운동 등을 같이 하고 수면을 조절하고, 뇌 발달에 좋은 음식을 식단으로 마련하며 아이의 뇌를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국민출판·값 14,800원)

세계의 흐름속으로

천년전통의 문화도시 전주,
서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
천년전통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 전주!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주는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일환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민이 살고있는 전주한옥마을은 국내 유일의 생활주거공간으로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다. 이제 전주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다양하고 독특하게 어우러져 한국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바탕 전주
세계를 바꾼다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서비스

MEDICHECK 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會 長 趙漢翊 (의대 21회)

副會長 蔡鍾一 (의대 30회)

金仁元 (의대 32회)

 한국건강관리협회

Sunmight 태양연마주식회사
Sun Abrasives Co., Ltd.

Automotive

Aerospace

Marine

Wood

Metal

Leading Company in a New Millennium



2013년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JB전북은행도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nce 1969
JB 전북은행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는 디지털 세상에
발맞추어 성장해온 디지털TV 기술의 전문 기업입니다."

2001년에 최초로 디지털TV에 내장되는 HDTV 수신모듈을
개발하여 한 발 앞선 디지털 TV 기술을 선보였고,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본 및 미주 지역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 통신정보 관리청 (NTIA)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컨버터 박스 인증을 획득 및 제품 공급하여 미국
디지털 전환에 공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DVB-T2 방식의 영국 FreeView+ HD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여, 영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및 IP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의 배양, 환경 친화적인
품질 개선 활동 강화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 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디지털 세상을 열어가는 기업

DIGITALSTREAM



www.dstreamtech.com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메디컬코리아대상

3년 연속

글로벌의료서비스대상

2년 연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하여 1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진료센터와 전문진료실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과	전화번호	진료과	전화번호
구강내과	02-2072-2611	통합진료센터	02-2072-3005 ~ 6
구강악안면방사선과	02-2072-2621	임플란트진료센터	02-2072-3305
구강악안면외과	02-2072-2631	원내생진료센터	02-2072-3841
치주과	02-2072-2641	악안면기형진료실	02-2072-3164
치과보존과	02-2072-2651	언어치료실	02-2072-3164
치과보철과	02-2072-2661	장애인구강진료실	02-2072-3831
치과교정과	02-2072-2671	구강질환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실	02-2072-3868
소아치과	02-2072-2681	치과응급진료실	02-2072-3011
구강병리과	02-2072-2361	외국인진료소	02-2072-0753
치과마취과	02-2072-384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콜센터 : 02-2072-3114 www.snudh.org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일반 (2012. 6. 30 ~ 2013. 1. 22)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명예회장 金在淳= 30만원
△부회장 李世中= 50만원
△부회장 李俊鎔= 1백만원
△부회장 鄭潤煥= 1백만원
△부회장 孔大植= 1백만원
△부회장 洪性大= 1백만원
△부회장 安秉勳= 1백만원
△부회장 崔秉烈= 50만원
△부회장 禹仁性= 1백만원
△부회장 卞柱仙= 1백만원
△부회장 金明子= 50만원
△부회장 吳 明= 50만원
△부회장 金鐘燮=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李禮植= 30만원
△이 사 權永驥= 30만원
△이 사 鄭啓泳= 30만원
△이 사 朴明潤= 30만원

상임이사

△朴武益 인문대동창회장= 20만원
△尹友錫 공대동창회장= 20만원
△成耆鶴 상대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응천 인문82
△김승웅 공대77 △노정학 사대73
△박부권 사대69 △박세희 문리55
△박영규 AMP66 △변장률 사회75
△심형섭 공대85 △안준석 사회84

△여동섭 미대98 △이봉환 공대77
△이인철 경영87 △이종철 GLP14
△이종환 AMP7 △장기봉 AMR26
△장세권 농대70 △장세창 공대65
△전경능 자연89 △정은자 음대83
△진희근 AFP8 △최봉식 공대69
△황민하 AMP67 △황지숙 음대83

〈일반〉

△가오지 國院04 △고용희 AMP73
△강문경 법대88 △권순재 자연88
△권순형 環院06 △권오정 IFP3
△김기완 농대87 △김보람 사대01
△김동균 사대63 △김영남 약대62
△김석민 공대72 △김중희 공대78
△김준문 사대72 △김준방 법대55
△김진의 공대64 △김춘방 법대55
△류도희 ACAD71 △문명인 AIC6
△박광훈 공대77 △박동환 공대67
△박종식 사대54 △박창선 공대61
△박흥석 ACPM6 △백정미 간호89
△서순원 SGS25 △소경용 ACPM6
△유상호 농대90 △유일웅 농대64
△윤철중 공대66 △이대람 농대03
△이동기 IFP7 △이만섭 치대57
△이수경 사대03 △이승엽 공대87
△이양연 공대98 △이윤기 공대78
△이일향 공대66 △전종운 법대85
△정영한 의대49 △정태삼 농대08
△주은숙 자연82 △지은희 약대82
△최유식 자연86 △한범석 경영88
△허대기 공대71 △현의송 농대61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김덕수83
△김덕출81 △김동철78 △김병철76

△김병철76 △김선아93 △김원환81
△노 찬74 △류 진78 △문상원72
△박명식77 △손예철69 △신중진92
△유국환81 △육동인81 △윤호중81
△이동일85 △이재경75 △임미화83
△임운택72 △장소원80 △전원배73
△최규식73 △한봉희77 △홍성범87
△홍성윤73 △홍중선75 △황보성85
◆사회대 △강종표76 △권용발74
△권혁규84 △김정우74 △김광재90
△김기준77 △김성환72 △김소용79
△김영섭81 △김영희74 △김용균84
△김용호75 △김준범84 △김진국78
△김장범86 △김충환73 △남기섭76
△노형식90 △류성록82 △문도선83
△박 철81 △박민식84 △박재하77
△박재하77 △박중욱81 △박찬욱72
△박홍배87 △박희영80 △방창식83
△손문호76 △송동섭81 △신희창69
△오철수82 △유동근92 △이계성77
△이동훈74 △이성만75 △이원섭69
△이재열80 △장경영92 △전승철81
△전홍찬79 △정봉교72 △정석구77
△정인익73 △정준표75 △정해영72
△조병철73 △조태형88 △주순식73
△최금락76 △최익순73 △하전기73
△한인구75 △홍석규75 △황정욱85
◆자연대 △강병도82 △김규중72
△김대영81 △김원준83 △김진익84
△김현식91 △민영철74 △박송용74
△박중욱72 △서재영83 △손병용68
△송환빈82 △양명룡74 △윤재근84
△이덕희77 △이동한77 △이명웅77
△이상영75 △이유문80 △이은용72
△이철의75 △장성기72 △정민화84
△조태진74 △진 민78 △최강원81
△최영욱84 △최윤경82 △최종권75

△최진우75 △홍광현77
◆간호대 △권영숙74 △김명숙61
△김신정73 △김장언79 △남은숙75
△박상연68 △이금문90 △이명란84
◆경영대 △권기출72 △김근수77
△김민수92 △김선구73 △김종한92
△김준철83 △김홍섭79 △김확식76
△박기준85 △박기환69 △박종완71
△박종호86 △반용음77 △백우현74
△서정호88 △서준호86 △성열우77
△신종열90 △오민철83 △유경연95
△유병인69 △이동호77 △이원엽87
△이호선75 △임기찬90 △조현택83
△진영근75 △차순관72 △최석원70
△추연우78
◆공대 △강명구89 △강의철73
△강효순68 △강희신85 △고 찬99
△곽정석50 △구창용60 △김 훈71
△김경배68 △김경호75 △김광옥56
△김남호70 △김도심52 △김동성73
△김명린61 △김문경61 △김범석92
△김석홍81 △김선복62 △김성언71
△김성철80 △김성태53 △김연철67
△김영규76 △김영길60 △김영석73
△김영신89 △김영오85 △김용원70
△김용범70 △김응호70 △김인동80
△김인선65 △김인준68 △김재수77
△김정섭77 △김종원74 △김종의69
△김주홍47 △김태문70 △김태선93
△김태준57 △김학노70 △김학세65
△김호수63 △김홍식76 △김회정57
△남장수64 △노승규82 △노용래72
△류재욱86 △문영기69 △문영학65
△민경식67 △박노상57 △박동서61
△박병국82 △박상덕71 △박상봉87
△박상언71 △박성규57 △박신동65
△박영복63 △박용규58 △박용준52

△박재기52 △박재룡68 △박진수70
△박찬민67 △박찬백67 △박찬석92
△박태권55 △박홍준71 △박화규77
△백명철79 △백상엽86 △변순천85
△부준홍74 △부창렬77 △서동식81
△서동원70 △서영수86 △서원수69
△서정만64 △설재훈74 △성기초51
△손석광75 △송배원75 △송창영68
△송대범85 △신동식51 △신영수74
△신종계73 △신홍현84 △신희승71
△안사은57 △안순신69 △안용수73
△안재혁01 △양 갑68 △양기정67
△양배근82 △양운재69 △어성준67
△여승동75 △여인선75 △오세기64
△오창석52 △우진태71 △유재운78
△윤맹현66 △윤병화58 △윤세한79
△윤조덕69 △윤종섭84 △이강우79
△이경환83 △이계수63 △이금석59
△이남순72 △이남진69 △이능규69
△이두호84 △이봉주67 △이상산80
△이상언81 △이상준76 △이상훈92
△이성원58 △이성팔72 △이용경60
△이원도59 △이원우78 △이원표72
△이운표77 △이재형76 △이정만70
△이종남73 △이종호84 △이종화76
△이종훈53 △이종훈55 △이주선64
△이중재64 △이중호70 △이찬홍74
△이철원80 △이태순79 △이홍원66
△이희성70 △임기석63 △임재열82
△장석주82 △장세일59 △전상백53
△정 진84 △정귀출73 △정성민61
△정옥희52 △정재영70 △정종철72
△정현교75 △정현일60 △정형수59
△조규남72 △조영주74 △조장현64
△조창현84 △조택호61 △조형제51
△전창호89 △최규현90 △최명식83
△최상현77 △최상호64 △최수현65



△최완철69 △최용진84 △최재순90
△최정우84 △하규성76 △하태흡75
△한광석76 △한영철74 △한재성79
△허욱렬70 △현희현59 △홍보기89
△홍성일66 △홍호식69 △황 철71
△황석희87 △황성호84 △황일인59
◆농대 △강철기76 △곽소수60
△구현수67 △권오진52 △김광호61
△김동태62 △김병운69 △김상도69
△김원달67 △김원보73 △김일종69
△김종률72 △김종훈67 △김지훈87
△김태수66 △김태호80 △김풍진71
△김희성61 △노영성74 △리신호74
△명유재83 △명인종73 △박기전81
△박동선58 △박상용83 △박순흥85
△박창언80 △변상지74 △부경생60
△서광섭79 △서기호60 △서병륜69
△서원호74 △서정근59 △손해일67
△손환규64 △송경빈75 △신대용53
△신동현86 △심미옥86 △심용섭70
△엄광섭83 △여환명86 △염익환78
△오봉국48 △오원식83 △왕진무60
△유병두73 △유부열66 △유장열68
△윤경섭65 △윤동원79 △윤여두67
△윤여성76 △윤여창53 △윤재호69
△이광희84 △이규재50 △이대진65
△이무근60 △이무영80 △이상결79
△이상국74 △이성호71 △이우중81
△이원덕80 △이임영81 △이장섭52
△이재기53 △이학재83 △이희석57
△임성민84 △임열재64 △임용택54
△임진득74 △정복현74 △조국광75
△조규태74 △조재구83 △최동하71
△최승호83 △최찬식56 △하영주83
△한갑준52 △현근택90 △홍동선56
△홍성표56 △홍순명68
◆문리대 △강사욱70 △고영소56
△구봉화62 △권혁방65 △김 승61
△김 욱69 △김대성61 △김동선57
△김상진71 △김상하45 △김용성62
△김재민67 △김준석69 △김치수60
△김태승54 △김하진58 △김홍철60
△남광성61 △남시욱54 △남영우68
△남찬순68 △노태돈67 △류종택56
△문현석66 △박경석55 △박동수46
△박맹호52 △박성훈69 △박소범59
△박정무59 △박하진67 △박흥식66

△배규한70 △배성근56 △석준형67
△송대성69 △송진혁61 △안국정63
△안병균67 △안소연65 △안승원68
△안취준61 △엄영진63 △오원영59
△오재희53 △오제운59 △오종발68
△원용대48 △유덕상68 △유보일60
△유양수57 △윤석현46 △이상원71
△이상직66 △이성덕56 △이성우63
△이영훈64 △이용태53 △이용태63
△이용화53 △이원영69 △이원홍52
△이정길59 △이정수59 △이종환62
△이종희54 △이형구59 △임병석54
△임형두57 △임형택62 △장부일69
△장영수63 △전종구70 △정기호70
△정만조65 △정병일62 △정소성64
△정용두53 △조완규48 △조창화57
△진홍순70 △채영수68 △전정락69
△최 웅69 △최중기69 △표완수67
△하영식58 △하영준55 △한기호57
△한영우57 △허운욱57 △홍두표55
△홍영남60 △홍치모52 △황인광63
◆미대 △김규봉88 △김미혜78
△김민기69 △김제응60 △김현실66
△민철홍54 △백문기46 △손희옥68
△신현장65 △윤명로56 △이선원75
△이종목76 △전민숙74 △정종택67
△조성애64 △한근석81 △한주연90
△현지연93
◆법대 △강 훈72 △강대석67
△강동세77 △강승준85 △강신원72
△강용식58 △강태중52 △강현안74
△고홍달68 △구본민77 △구충서71
△권기수73 △권영국69 △권은민82
△김관재71 △김권택63 △김규복69
△김덕주52 △김동원52 △김명주87
△김범수82 △김봉학70 △김부찬74
△김상균77 △김상우86 △김석영51
△김성수68 △김수철71 △김연곤85
△김영갑74 △김영대61 △김영우56
△김영학83 △김완섭65 △김용환60
△김정보67 △김정학71 △김정후57
△김제식77 △김종일52 △김종철53
△김종현89 △김준규75 △김준희76
△김진세61 △김찬식68 △김철수52
△김태병85 △김학의76 △김하남49
△김호웅72 △김흥면72 △김희주84
△김희태74 △나종태71 △노경국02

△류기흥58 △류진열72 △민수광60
△박국수67 △박상일77 △박성기71
△박성진84 △박연철68 △박윤흔55
△박인제71 △박종성73 △박준서58
△박준서59 △박홍우72 △박휴상65
△백준기77 △변동결66 △변학남52
△변학남52 △서복현76 △서승일67
△서정석77 △서정신58 △성낙인69
△성문용63 △송병대67 △송상규84
△송창현69 △송창현69 △신성철65
△신일규69 △신정철52 △신현일77
△신호철61 △심우영59 △심장수70
△안경환66 △안상수64 △안성일78
△양재택77 △양현우81 △양희영52
△오세희58 △오지철69 △오천석76
△우성만76 △유 훈49 △유남석76
△유병규83 △유병환77 △유재선63
△유종결64 △유홍섭78 △윤경희65
△윤교중65 △윤덕순59 △윤신승88
△윤홍근79 △이건중72 △이기웅50
△이동명75 △이동준59 △이무룡61
△이무상78 △이사철71 △이상국90
△이상배58 △이상우57 △이상진70
△이상환78 △이석희51 △이선우62
△이세형68 △이세형68 △이승철81
△이영주58 △이용우92 △이원호61
△이은종77 △이인산60 △이재근82
△이재성69 △이준상85 △이창복74
△이철승78 △이충범78 △이태운68
△이현목78 △이효중59 △임내현71
△임준홍73 △전 광63 △전수진86
△전용학73 △전응진49 △전창영74
△정대철62 △정선대75 △정세용74
△정영목85 △정해주63 △정호영66
△조남욱53 △조용무60 △조용준79
△조장혁90 △조중환65 △조철호91
△조해현81 △조현우68 △주우식78
△차한성72 △최병륜56 △최병모67
△최병호83 △최순철55 △최연희64
△최영도57 △최정현75 △한 민77
△한경구61 △한경대60 △한재현67
△현홍주59 △홍경식70 △홍진태52
△황영목70 △황영선55 △황영하58
△황희만70
◆사대 △강경돈70 △강영삼59
△강창석66 △강철용69 △강하규68
△곽보조70 △권 승76 △김상구60

△김상현81 △김성대59 △김영심82
△김용균65 △김용진75 △김원용74
△김재호53 △김점술82 △김정기74
△김종필46 △김주화65 △김지은92
△김찬규83 △김찬근54 △김창선61
△김천수58 △김학희73 △김홍섭73
△남창렬65 △노재영91 △류근찬68
△문영식73 △민무일65 △박남기50
△박명숙84 △박병익74 △박상필76
△박영배74 △박영태67 △박임희05
△박재공62 △박지모77 △박태섭76
△박효석70 △변범식86 △석용정77
△설동균68 △성 현69 △신동철59
△신용래52 △신차근68 △오창훈83
△위종진91 △유경근58 △유형탄78
△윤익모62 △윤재석71 △이경복69
△이계현72 △이광범92 △이규석66
△이동식72 △이동호59 △이상요74
△이선준48 △이연숙89 △이오봉61
△이원순45 △이재민79 △이재혁63
△이종승65 △이준선69 △이진구71
△이찬근74 △이혜영75 △이호준60
△이환기81 △인병식61 △임광수68
△정종택55 △정준화83 △전택수71
△정공수69 △정광삼58 △정기연72
△정상권72 △정용길77 △정원식48
△정재정70 △정창석73 △정철수68
△정희섭76 △조용복55 △조인형60
△채미영82 △최동환72 △최병환70
△최성재85 △최영상56 △최대상53
△하현준78 △한도연49 △한준수76
△함오연67 △하영섭74 △형남규67
△홍석영85
◆상대 △고두모57 △구선희56
△구용서60 △권태인46 △권희택56
△김덕기52 △김만경53 △김명수73
△김명준62 △김병식68 △김상희66
△김용균65 △김원길61 △김인호61
△김창달53 △김태겸70 △김형덕59
△남영태65 △문영도50 △박병준51
△박상은55 △박성석61 △박종민64
△배정운59 △서정도66 △서충석71
△송병탁59 △송인덕62 △신승철59
△신양우70 △신혜철69 △안재전56
△양승우68 △우두현61 △우찬목55
△유석홍61 △윤석현67 △윤종현44
△이갑현61 △이계문70 △이계안71

△이광수50 △이남수62 △이동혁65
△이상윤62 △이승섭50 △이용성56
△이용휘57 △이윤우68 △이재욱65
△이태환58 △장병구64 △전문준64
△전종환51 △정재택58 △정태욱62
△정태웅67 △정형배64 △조문규57
△조상호69 △조영삼71 △조창제57
△최기동70 △최도성70 △최수일55
△최종인61 △현정택67 △홍영기57
△황 훈68
◆생활대 △김지영69 △손희준77
△정영진68 △정해자61 △조성교69
△황수현04
◆수의대 △김계방61 △김진구61
△김창수64 △나기식54 △나종국54
△박근하76 △박성권74 △박전교74
△신현일57 △오효성77 △이각모64
△이상만48 △이성모78 △이수창61
△임영철74 △장광호75 △정원공50
△조용호83 △조휴익59 △주현식73
△최병조76 △하태은80
◆약대 △김길수60 △김동춘55
△김미희84 △김상수66 △김상조54
△김선중61 △김성오81 △김원목78
△박대창69 △박만기59 △박시우69
△박진우07 △배영일60 △손인자69
△신형균72 △심우원72 △심현주85
△우종균61 △원용환78 △원희목73
△윤도중58 △윤병길71 △윤효선53
△이세영57 △임종석78 △전희창67
△정경호77 △정현경83 △조영준69
△조용현74 △조정식62 △조중현68
△주승재86 △지현석56 △최선식64
△최진근77 △허 상58 △홍성한76
◆음대 △김순화70 △김인규65
△김진이92 △민미란73 △박세나90
△서계숙56 △손국인64 △신상호74
△신정혜77 △심선화72 △유형웅60
△윤이나86 △이명희68 △이신화61
△이영심78 △이유희68 △이준복68
△이준성81 △전신주67 △최승용78
△홍지영83 △황응준87
◆의대 △강승백82 △강재훈88
△고건성67 △고영초71 △김광희55
△김규한76 △김기락68 △김명석62
△김병수64 △김병재93 △김상은77
△김서정86 △김성오87 △김영균43

행복출발 & The One noble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대한민국 1등 결혼

1%를 위한 Honors 결혼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행복출발 & 더원노블

美 명문대 외트 스쿨(MBA) 경영진
15년 노하우의 노블레스 결혼정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무료 상담 1588-3883
02) 2023-6166

신뢰의 상징 세계최고 MBA 출신들	완벽한 맞춤형 전문특화 결혼정보	압도적인 성혼율 15년 노하우, 특허매칭	100% 신원인증 글로벌 검증시스템	1등결혼 실현 고객행복브랜드 대상
------------------------	----------------------	---------------------------	------------------------	-----------------------

△김용봉70 △김인호71 △김태규76
△김현규78 △노충희70 △맹국영68
△목정은60 △문대혁76 △문대준44
△박경환71 △박종명69 △박주배68
△박충화71 △백대진74 △서동희88
△성상현73 △손정민87 △양성범75
△양영식66 △오경균67 △오승환56
△유세화65 △유영성70 △유재란82
△이관희75 △이광우70 △이근장90
△이상곤73 △이승규67 △이영돈73
△이정길63 △이종호81 △이충원76
△이태연92 △임대정91 △임태환70
△장경만80 △전형식81 △정 민75
△정경태53 △정두용73 △정용인68
△정유조85 △정을삼60 △정종환56
△최복식84 △최용석82 △하재인44
△한규섭72 △한홍무56 △허준평70
△홍기정81 △홍성출89 △홍순우85
△홍영식61

◆치대 △강대준62 △고영식68
△권오규71 △김 일51 △김상철73
△김석연68 △김영철61 △김장현77
△김정욱83 △김종태70 △김진홍78
△김한경63 △김현재87 △김홍석57
△김홍석59 △김효은82 △남용욱51
△남태우76 △목성규81 △문복강62
△문형주79 △민병희74 △박기성55
△박수훈79 △박용한78 △박우찬68
△박종만60 △박형기55 △박홍규71
△백순지63 △백승동78 △변석두53
△서영수67 △서학원74 △손영경86
△송명욱86 △송재용82 △신동인76
△안건모83 △양수정83 △양일수73
△양철호87 △유병도56 △유태영63
△윤귀성80 △윤귀성80 △윤동호80
△윤학영62 △은세원81 △이동악70
△이만희83 △이복상81 △이봉재56
△이상표77 △이석형58 △이성출70
△이승종69 △이영대70 △이윤상59
△이재봉70 △이재성58 △이종혁74
△이종호79 △이진결77 △이진규78
△이창우75 △이형규57 △이호정86
△임성수60 △임채균53 △장은식89
△전태수56 △정관서79 △정대현69
△정재영70 △정철표74 △정행남62
△정호길71 △조유동55 △조인호70
△조행작64 △진기열77 △진윤수80
△최순철73 △허재식93 △황의강61

◆대학원 △가순일94 △권호기83
△김경남84 △김경진84 △김기혁85
△김문한79 △김석근81 △김세재85
△김승호83 △김창준86 △김흥렬81
△나병만77 △문두길87 △문형근79
△박동준83 △박영득82 △박응수81
△서상혁79 △송강영91 △신동수92
△신호수85 △심정보83 △원상봉83
△유장훈86 △이시운81 △이재봉79
△이정채83 △임유택87 △임장수82
△전용기82 △정기화71 △조태현79
△최계운82 △최원희81 △하두봉56

◆경대원 △김일란69 △김한준89
△임인규88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김병환65 △김윤신72
△김종오79 △박희서77 △신석우65
△이형구91 △정진택84 △조귀래04
△최영아74 △황석천80

◆사대원 △이원형64 △정경식63

◆신대원 △김우룡71 △유일연72
△유종수70 △조용직70

◆행대원 △강윤원77 △곽대훈78

△김영화68 △김익영68 △김인동65
△김장실79 △남상우73 △노일숙79
△박병권82 △박우순76 △이경훈76
△장성호85 △장준규65

◆현대원 △권 완76 △김수철76
△김제성78 △박유정90 △박형석74
△정병환69 △최강림90

◆AMP △강성숙69 △고시목8
△권오석61 △권오영64 △김구섭66
△김기만63 △김세래46 △김승배45
△김영만65 △김영환34 △김진섭9
△김판진53 △노연웅48 △서근석16
△석 강61 △손병준68 △송학성63
△신동대35 △신재덕49 △신희철57
△우정욱37 △유병운23 △유시수25
△유진석32 △유한섭23 △육신학57
△윤수복63 △윤열현68 △윤종호48
△이규식54 △이병구16 △이병성2
△이원구50 △이윤로50 △이용표36
△이정식13 △이주현45 △이한규23
△이현구52 △정영준62 △전용배57
△전현찬44 △정건택21 △정영대48
△조형수58 △진옥윤32 △최재선9
△최호경28 △한종희28 △허덕행2
△황의영59

◆AIP △고희수25 △권영렬19
△김선경41 △김영대44 △김장근15
△김휘중41 △문규원10 △박몽식16
△박무광43 △박양신20 △박영식28
△박임간3 △박종원27 △박종호9
△박한장17 △서영복19 △손광열9
△송기은19 △신용기9 △신현필13
△심영복38 △유길상9 △유영완17
△윤여순27 △윤희동24 △이덕영23
△이두평8 △이명호20 △이상희15
△이선재42 △이의현20 △이충언14
△임지현30 △정동진28 △정봉성29
△정상원39 △정창현20 △주영현12
△최순규36 △최원태26 △추현식32
△허정광19 △홍재성40 △황이남22

◆ACAD △곽기영54 △권도중49
△권영호60 △김경래18 △김우연14
△김철환46 △김태완44 △노재우16
△박남신70 △박명규40 △박성득20
△박인복47 △방동식27 △변승일63
△서정만18 △안희수11 △원광호36
△이강국63 △이관범20 △이달화24
△이상영40 △이재복21 △이희수49
△전 홍48 △전병순42 △정송학54
△정시채9 △조건창49 △조주태14
△조홍규26 △최수근51 △최종구62
△최철규68 △한성열67

◆ABP △김현운20 △양종하19
△이계용2 △이상래24 △이관철3

◆SGS △김봉규25 △김승규7
△김영구3 △김제남19 △김희철12
△손성오12 △안기석10 △이경민19
△이창식13 △정병재5 △정후병15
△조승연25

◆APC △김종섭8 △이상진9
△정만모9 △조갑환9

◆HPM △권기진8 △김강희11
△김경태10 △김정자20 △김현수2
△김홍구12 △선덕남4 △성치용4
△성현제7 △엄신희14 △이규진14
△이정희12 △이천수9 △이철희4
△이충섭8 △전성혁13 △정호용8
△정희순14 △최병용9 △최종환10

◆AMPP △김인신6 △김종민4
△송실광7 △이귀복5 △최종식6
△하영수2

◆AIC △김동현25 △김영식29
△김운식29 △김정구3 △김형준24
△류진국1 △박경숙8 △박실상9
△박종렬3 △신철화22 △웅상순7
△이경호7 △이인기11 △이일로1
△이정재2 △임봉순15 △정문위30

◆AFB △곽 후10 △김경일6
△김종복1 △문제민4 △송흥수10
△이동락1 △이영두9 △이혁환9
△이화식9 △장세영8 △정일진10

◆AMPFRI △강동원27 △강태호22
△김경호15 △김정훈1 △문윤봉15
△박용철4 △송명익24 △이병윤26
△이유인7 △임한택6 △정지택3
△최재용23 △한기영3 △한봉수9
△호재국2

◆ACPMP △강현찬6 △김기식6
△김승택6 △김재호6 △김정식3
△김희현6 △남관우5 △남순우3
△우순곤7 △이정현5 △임전수6
△정지호1 △하대정5 △한남희5

◆FIP △우영대7

◆GLP △권덕수15 △김강호4
△김상현21 △류명선21 △박영식18
△서승욱19 △양재길5 △윤경삼22
△윤석호7 △윤여표11 △이동향9
△이용섭18 △이원욱11 △이훈순12
△임범식19 △전인해14 △정해연17
△차화철12 △최종선4 △허수진14

◆ALP △권동환2 △김경일3
△박기춘13 △소진세12 △이용우11

◆ANMP △김성열5 △이영수6

◆SPARC △김 건8 △김달수1
△김윤창11 △김인환2 △김청자13
△김해명13 △백인호18 △서영출1
△석종호19 △유상욱16 △이덕록7
△이영환19 △임세현19 △임세현19
△장재진2 △장효상11 △정삼진18
△최동관19 △허상록11 △황인선15

◆AFP △박문순6 △이창식6
△조원국5

◆ASP △김종배11 △민병렬13
△박상호16 △안준근9 △정화영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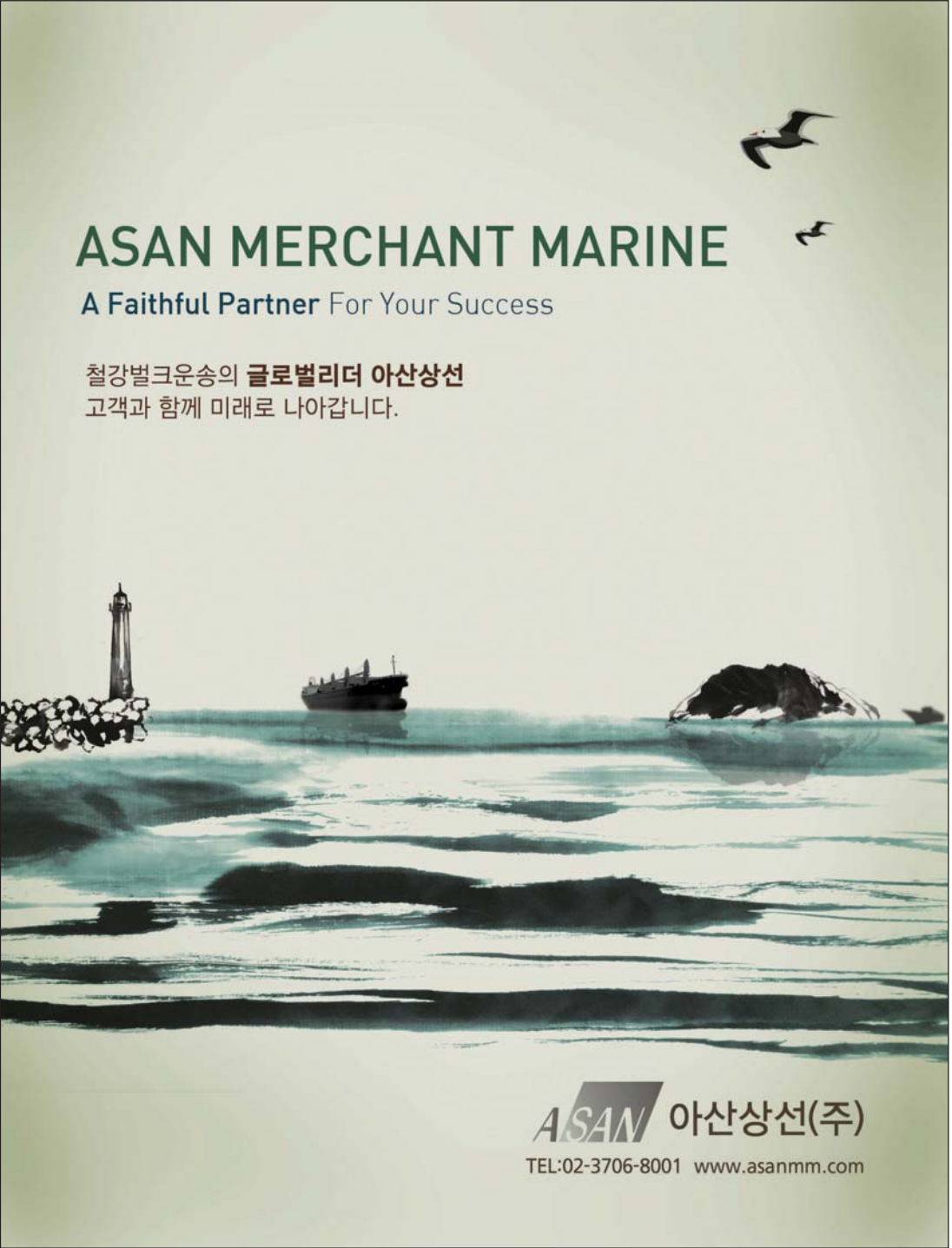
일	반
---	---

◆인문대 △강현구79 △강현주93
△권영기73 △김경아85 △김세희01
△김정호90 △김학래74 △노민혜08
△류은숙04 △박창언89 △박희일91
△석제범81 △설 한76 △송재종74
△심재우86 △윤나경06 △이 건59
△이건협86 △이계원04 △장대철84
△정준모89 △정지윤06 △조운일83
△최상이99 △최완석98 △하지영04
△황영준00 △황진상98

◆사회대 △강지원07 △곽대환81
△권대훈87 △김경배05 △김덕인82
△김부겸76 △김슬기06 △김승희87
△김연광80 △김용숙76 △김용표81
△김응서07 △김재형97 △김정환90
△김지혜04 △김현민01 △나상수82

△남정훈04 △노창현81 △도종윤97
△문준석92 △박희택96 △방동욱00
△백승훈80 △서규섭93 △서동섭01
△송인권72 △신병호73 △신상기69
△신상덕76 △안기복89 △양완모03
△양제열02 △엄해립06 △유남길81
△유윤균85 △이민호84 △이승호05
△이영수95 △이종훈85 △이준우92
△이진성05 △이차복87 △이해금76
△임일섭83 △장성호86 △장희경07
△전상호84 △전주현90 △정달섭81
△정성효81 △정용학78 △조수아98
△주영기86 △최문성04 △최형근69
△홍기현76 △홍재욱69 △황의현79

분 담 금	
◆필리핀지부 500, 000원	
2012년 12월	
연 회 비	43,830,000원
평생회비	25,300,000원
입 회 비	120,000원
분 담 금	500,000원
계	69,750,000원
2012년 누계	1,147,619,581원
〈지면관계로 인문대, 사회대를 제 외한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 일반 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합 니다〉	



ASAN MERCHANT MARINE

A Faithful Partner For Your Success

철강벌크운송의 글로벌리더 아산상선
고객과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ASAN 아산상선(주)
TEL:02-3706-8001 www.asanmm.com

無等山

 광주광역시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

대한민국 스물한번째 국립공원 되다

수천만 년 세월의 흔적을 제 몸에 아로새기고 언제나 너른 품을 내어주는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산. 이제, 국립공원 무등산과 함께 상생과 도약의 새로운 광주시대를 시작합니다.

무등산의 사계절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소개팅을 시켜주면, 친구는
 “내 취향은 니가 제일 잘 안다”
 회식장소를 예약하면, 부장님은
 “권대리가 고르는 집은 항상 최고야!”
 참치캔을 따주면, 고양이는
 “냐옹! 나아옹!!”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다
 마치 효성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효성에서 일한다



(주)효성 산업자재PG
권유리 대리

타이어코드 세계 1위
 스팅덱스 세계 1위
 소형 ATM 세계 1위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